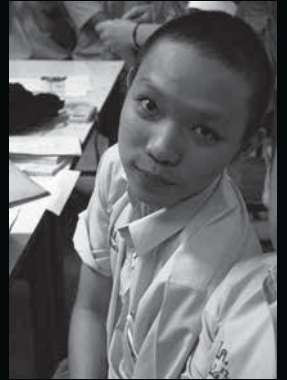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Original title: *Good Policy and Practice in HIV and Health Education - Booklet 8: 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

First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7, place de Fontenay, 75352 Paris 07 SP, France

© UNESCO 2012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3, for the Korean translation

The present edition has been publishe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by arrangement with UNESCO.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펴낸 때 2013년 10월 31일
펴낸 이 민동석
펴낸 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11 / 팩스: 02: 6958-4250
이메일: jwnoh@unesco.or.kr
웹사이트: www.unesco.or.kr

번역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디자인조판 정명진
편집 노지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ISBN 978-89-94307-47-3 03370

이 책에 실린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 또는 당국의 법적 지위나 국경과 경계의 지정 등에 관한 명칭과 표현은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실린 특정 사실의 선택과 전달, 관련 의견의 표현에 대한 책임은 저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한국어 번역은 유네스코와 계약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발간사

학교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어야하고 어떤 이유로도 그 길이 가로막혀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비록 가고 싶어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헌장」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완전하고 균등하게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함을,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비록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은 쉽게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만, 학교폭력, 왕따 등과 같이 우리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관심과 보살핌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성애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터부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2012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HIV 및 보건 교육 우수 정책과 사례’ 시리즈(전8권) 중 제8권 『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해소해야 하는 걸림돌 중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 쪽이 되지 않는 소책자이긴 하지만 담고 있는 의미와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의 교육 체제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사실 꺼내기 어려운 주제이고,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써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더이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세계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현황, 이에 대처하는 국가 및 학교 차원의 활동 등 세계의 경험과 정책 사례가 실려 있어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자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에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한국어판 발간을 제안하고 번역한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학교를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 동 석

민 동 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어판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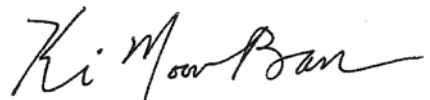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때문에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때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안전해야 마땅할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조차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인권침해로 인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등 기존의 성규범에는 들어맞지 않는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좋은 정책과 사례들을 담 아 이 책을 펴낸 유네스코에 제가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개입방안 들이 이미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여러 사례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활동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교육현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해 소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교사, 행정가, 정책입안자,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관용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국가 기관이 오히려 문제의 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76개 국가에서 아직도 성인인 동성간의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염려됩니다. 동성애 나 비전형적 성별정체성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이며, 청소년이나 교육과 관련된 경우 사람들은 더욱 민감하게 느낍니다.

저의 모국,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대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열거된 사례들은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수집된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혁신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인류 가족의 구성원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평등하며, 온전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며,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서문

동성애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양질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원인과 영향을 밝혀내기 위한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이 문제가 상황에 따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탓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사, 행정가, 정책입안자, 그 밖의 교육관계자들께서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좋은 정책과 사례들을 참고하여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교육제도가 전통적인 교실을 넘어서 가정, 지역사회, 종교기관, 기타 학습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제도권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책은 교육부문의 정책입안자, 계획자, 전문가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엔기관, 개발파트너,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영감을 주는 자료로 이 책이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이 책은 좋은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는 인기 있는 유네스코(UNESCO)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유네스코가 HIV와 성교육 관련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 내 건강증진(school-based health promotion)에 관하여 발간하려고 하는 여러가지 기획물 중 첫번째 작품입니다. 어떤 피드백이든 환영하며, 독자들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시리즈의 개발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활용하고, 동료와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길 바랍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지금 당장 근절하여 더 안전한 학습환경을 만듭시다.



치엔 탕(Qian Tang)
유네스코 교육 사무차장보

감사의 글

이 책은 유네스코(UNESCO)의 HIV와 보건 교육부(Section of HIV and Health Education)에서 발간했으며, Kathy Attawell 자문위원이 글을 썼습니다. Mark Richmond(전 평화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국장겸 HIV/AIDS 분야 유네스코 글로벌 코디네이터)께서 처음 구상해서, 최수향 현 평화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국장이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험과 사례를 함께 나누어준 모든 이들의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2011년 12월에 열린 <교육기관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들과 단체에 유네스코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국제회의를 위해 기초 연구를 수행해 주신 Peter Gordon 박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유네스코의 실무진 Christopher Castle, Dhianaraj Chetty, Christophe Cornu, Adam Kegley, Audrey Kettaneh, Frederica O'Meara, Scott Pulizzi, Justine Sass께서 책의 발간을 주관하고, 제안과 조언을 하며, 수많은 초안들을 검토해 주었습니다.

감수를 맡아주신 Michael Barron (BeLonG To), Shari Kessel Schneider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Inc), Carla Sutherland (Arcus foundation)께도 감사드립니다.

목 차

발간사.....	3
한국어판 서문	4
서문	5
감사의 글	6
약어.....	8
용어정리.....	9
1. 들어가며	11
2. 배경과 근거.....	15
2.1 학교 내 괴롭힘	15
2.2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19
2.3 왜 교육부문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처해야 하는가?.....	29
3. 행동하기: 개입하고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33
4. 좋은 정책과 실천 사례들.....	39
4.1 정책	40
4.2 교과과정과 수업	52
4.3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	63
4.4 협력과 연대	68
5. 맺음말	75
참고문헌	76
번역후기	85

약어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EFA	Education for All
GALA	Gay and Lesbian Memory in Action
GALE	Global Alliance for LGBT Education
GLEN	Gay + Lesbian Equality Network
GLSEN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DAHO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
IGLHRC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YO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Youth and Student Organization
ILGA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LGBTI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
NG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UK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	United Nations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용어정리

이 책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가능한 한 유엔(UN)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랐습니다.

비전형적 성별정체성(Atypical gender identity) 신체에 대한 감각 등 자신의 성별에 대하여 내면적이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경험(아래 ‘성별정체성’ 참고)이 출생시 부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전형적 성별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성애자(Bisexual)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용어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이(Gay) ‘게이’라는 용어는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적 행위, 동성애자의 문화정체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본성적으로 남성에게 성적 끌림을 경험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남성을 지칭합니다.

젠더와 성(Gender and sex) ‘성(sex)’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구분을 지칭하는 반면, ‘젠더(gender)’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그 사회에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고 여기는 역할, 행동, 활동, 속성들을 가리킵니다.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자신의 성별에 대해 느끼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가리킵니다. 성별정체성은 자기 신체(원하는 경우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내과적, 외과적 방법 등으로 신체의 외형이나 기능을 변형하기도 함)에 대한 감각이나 복장, 화법, 습관과 같은 성별의 표현 방식 등을 말하는데, 성별정체성이 출생시 부여된 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¹⁾

동성애혐오(Homophobia) 동성애자나 동성애에 대한 공포, 거부, 혐오로, 낙인을 찍는 태도나 차별하는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동성애(Homosexual/Homosexuality) 동성애자는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성(Intersex) 남성과 여성의 일차성징과 이차성징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1 Council of Europe (2011), *Report on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Europe*, 2nd edn, Paris: Council of Europe.

레즈비언(Lesbian) 본성적으로 여성에게 성적 끌림을 경험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여성을 말합니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이성이나 동성인 상대나 여러 성에 대하여 정서적, 성적으로 강하게 끌리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개인의 특성을 말합니다.² 예를 들어, 게이 남성은 본성적으로 남성에게 성적 끌림을 경험하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레즈비언 여성은 본성적으로 여성에게 성적 끌림을 경험하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양성애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별정체성이 출생시의 성과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여성의 외모) 트랜스젠더와, 여성에서 남성으로(남성의 외모)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이성애자일 수도, 동성애자일 수도, 양성애자일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혐오(Transphobia) 트랜스섹슈얼, 트랜스베스타잇 등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가지는 공포, 거부, 혐오로, 낙인을 찍는 태도나 차별하는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트랜스젠더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별과 신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치료(수술, 호르몬요법 등)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트랜스베스타잇(Transvestite) 트랜스베스타잇은 비상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출생시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의 복장을 정기적으로 입는 사람을 말합니다.

2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2007), *Yogyakarta Principles -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ttp://www.yogyakartaprinciples.org/principles_en.pdf



1. 들어가며

유네스코에서는 HIV/AIDS, 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등 교육부문에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관하여 ‘좋은 정책과 사례’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책은 그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유네스코가 그동안 학교 내 젠더, 차별, 폭력과 관련하여 해 온 작업의 토대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³은 특정 젠더에 편향된 괴롭힘으로, 실체나 의견상 보이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교육부문에 중요한 주제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가 어떤 시도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없애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성

3 이 책에서는 용어의 간결성을 위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짧게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트랜스젠더혐오성 괴롭힘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공유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또다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애가 민감한 주제이거나 불법인 국가에선 더욱 어렵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가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개입방안들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정책들 안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맞서는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국가별 특수한 상황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활동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장래에 더 많은 인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교나 대학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도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서있는 환경, 정서적 지원, 또래와 어울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로 인정되어 왔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의 ‘교육차별 철폐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에서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세계 각지의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 괴롭힘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 내 괴롭힘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2006년 ‘유엔 아동폭력에 관한 세계보고서’⁵에서는 괴롭힘이 심각한 교육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교사와 남학생들이 여학생에게 성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이하 LGBT)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을 포함하여, 주류의 성규범과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누구나가 성과 젠더를 이유로 한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고 불리는 이 특수한 종류의 괴롭힘은 교육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업성취를 저해합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신념이나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종, 성, 피부색, 장애,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용납할 수 없듯이, 성적지향이나 실제 또는 외견상 보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주관으로 2011년 12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최초의 ‘교육기관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관한 유엔 국제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와 경험이 이 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교육부, 유엔기구, NGO, 학자 등 전 세계 25개

4 요그야카르타 원칙(2006년)은 국가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이슈에 대하여 인권기준과 적용방안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2007), *Yogyakarta Principles –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참조. http://www.yogyakartaprinciples.org/principles_en.pdf

5 Pinheiro, PS, (2006),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http://www.unicef.org/violencestudy/reports.html>

국 이상에서 온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⁶ 참가자들은 세계 각지의 교육기관에 퍼져있는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근절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것을 각국의 정부에게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⁷

이 공동성명은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⁸에 대한 회답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 근절”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층 더 힘을 얻었습니다.^{9,10} 유엔사무총장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표현하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 모든 사람들을 —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11,12}

이 책의 목적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규모와 결과를 강조하여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고,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 전략을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교육제도 전반에 개입이 필요하며, 이 책에는 이 모든 교육수준에서의 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민감하게 여겨지는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논의가 보다 자유로운 국가들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용이하며, 대다수의 정책들도 이 수준의 교육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할 위험은 고등교육현장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학습환경이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괴롭힘의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교육부문의 정책입안자, 계획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필되었지만, 그 외에도 교육, 성, 젠더, 청소년 이슈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후원자, 유엔기구,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등에게도 흥미롭고 가치있는 책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2장은 교육부문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교육기관에서

6 이 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의 전체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unesco.org/new/en/hiv-and-aids/our-priorities-in-hiv/gender-equality/anti-bullying/anti-bullying-participants/>

7 UNESCO (2011). http://www.unesco.org/new/en/hiv-and-aids/single-view/news/unesco_leads_a_landmark_anti_bullying_initiative/

8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개인들에게 자행되는 폭력과 차별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이 연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UN General Assembly (2011), *Human Rights Council Seventeenth session: Follow-up and implementation of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http://www.dayagainsthomophobia.org/IMG/pdf/UN_SOGI_Resolution-English.pdf

9 OHCHR (2011),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9session/a.hrc.19.41_english.pdf

10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동성애혐오가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와 마찬가지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1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8 December 2011. <http://www.un.org/sg/statements/?nid=5747>

12 그 외 관련 메시지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관한 인권이사회 회의(2012년 3월)’에 보낸 유엔사무총장의 영상메시지, <http://www.un.org/sg/statements/index.asp?nid=5900>; 아프리카연합 정상회담(2012년 1월)에서의 유엔사무총장 개회사가 있습니다.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1073>

발생하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특징, 범위와 영향을 개관합니다.

- 제3장은 각 국가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하여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제4장은 교육기관내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관하고, 좋은 정책과 사례, 연구조사결과, 혁신적인 개입방안, 경험을 통한 교훈을 소개합니다.¹³
- 제5장에서는 맺음말을 제시합니다.

13 유네스코의 HIV/AIDS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hivaidsclearinghouse.unesco.org/search/format_liste.php?Chp11=Homophobic%20bullying%20in%20educational%20institutions&lan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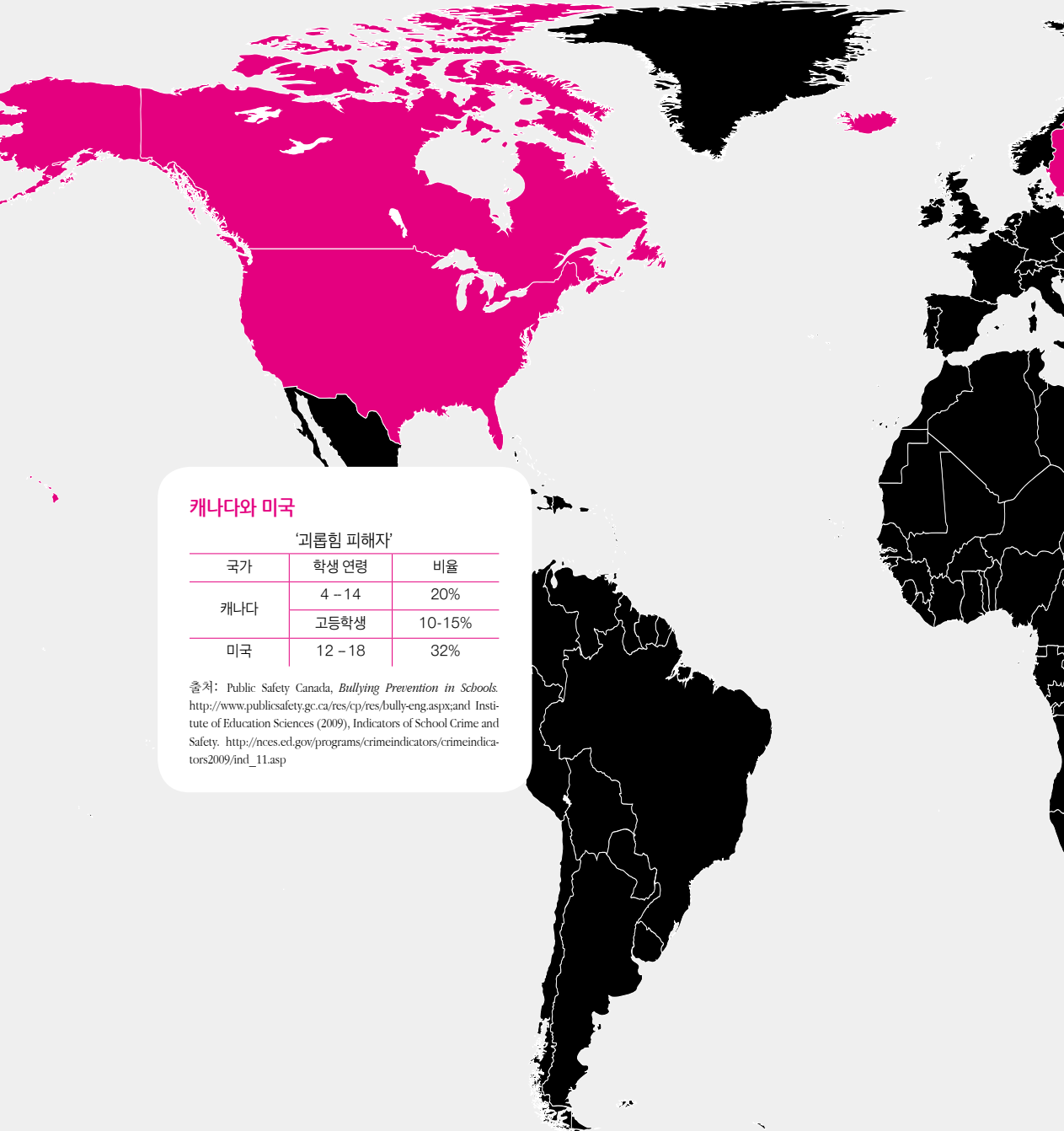
2. 배경과 근거

2.1 학교 내 괴롭힘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나빠지고 교육현장의 안전이 저해됩니다(박스 1 참조). 괴롭힘은 다치게 하거나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며,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합니다. 때로 괴롭힘이 신체적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형사범죄로 다루어야 할 폭력과 교육당국이 다루어야 할 폭력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칼부림은 경찰서로 가야 할 문제이지만, 밀치고 발로 차고 다투는 것과 같은 폭력은 교육당국이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괴롭힘은 세계 어디서나 흔하게 나타납니다(다음 페이지 그림1 참조). 연구마다 괴롭힘의 정의는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가해자, 혹은 양자 모두에서 청소년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1. 학교 내 괴롭힘 — 세계적 문제



캐나다와 미국

‘괴롭힘 피해자’

국가	학생 연령	비율
캐나다	4 - 14	20%
	고등학생	10-15%
미국	12 - 18	32%

출처: Public Safety Canada, *Bullying Prevention in Schools*. <http://www.publicsafety.gc.ca/res/cp/res/bully-eng.aspx>; and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2009),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http://nces.ed.gov/programs/crimeindicators/crimeindicators2009/ind_11.asp

유럽

'최근 괴롭힘을 당한 경험'

학생 연령	국가	비율
11	스웨덴	4%
	터키	33%
13	스웨덴	4%
	리투아니아	29%
15	아이슬란드	3%
	헝가리	3%
	불가리아	23%

출처: Currie C et al. (eds) (2008), *Inequalities in young people's health: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5/2006 survey*.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아시아

		국가	비율
'지난 한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 학생'		필리핀	65%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력피해를 받은' 학생		몽고	27%
'학교 내 괴롭힘을 목격한' 학생		라오스	98%
학생 중	가해자	중국	2%
	가해자 및 피해자		1.5%
	피해자		>13%
'지난 일년간 최소 한 번 이상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들		방글라데시	30%

출처: Pinheiro, PS, (2006),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http://www.unicef.org/violencestudy/reports.html>

아프리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국가	비율
케냐: 나이로비 공립 학교들	63-82%
'지난 한달 동안 한두차례 괴롭힘을 당함'	
남아프리카공화국	>50%

출처: Jones, N, et al. (2008), *Painful lessons: The politics of preventing sexual violence and bullying at school*. Woking/Londres, Plan/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Working Paper 295)

박스 1: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괴롭힘에는 놀리기, 조롱하기, 상처가 되는 별명 부르기, 심리적 조종, 신체적 폭력, 사회적 배제 등이 있습니다. 혼자 괴롭히기도 하고 또래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는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괴롭힐 수도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괴롭힘은 이메일, 핸드폰, 문자, 명예훼손성 웹사이트를 통해 괴롭히는 것을 말하며 장애가 있거나, 성적 선호가 주류와 다르거나, 소수문화집단 출신이거나, 특정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쉽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가하는 학생이나 당하는 학생이나 모두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학업성적도 저조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또래들에 비해 우울, 외로움, 불안을 겪거나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가해학생의 공격적인 행동은 종종 좌절감, 수치심, 분노에서 비롯되거나 사회적 조롱에 대한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출처: UNESCO (2011), *Stopping Violence in Schools: A Guide for Teachers*.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41/184162e.pdf>



2.2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누구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과 다르게 보이는 학생들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가장 쉽습니다(박스 2 참조). 성적특성이 달라 보이거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정체성이나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외견상 보이는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괴롭힘 중 하나의 특수한 유형으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고 정의됩니다.¹⁴ 학교는 가장 동성애혐오적인 사회공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보다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5,16,17}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단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의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성소수자라고 파악된 학생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¹⁸ 뉴질랜드의 한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시를 쓴다고 저를 게이라고 불렀어요.”¹⁹

교육기관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특징과 범위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놀림, 인신공격, 공공연한 조롱, 소문 퍼뜨리기, 헐박, 밀거나 때리기, 소지품을 훔치거나 망가뜨리기, 사회적 고립, 사이버괴롭힘,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살해 위협 등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²⁰

스톤월(Stonewall)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영국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중에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²¹ 이스라엘에서는 동성애혐오성 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쉬는 시간 중에 교실이나 복도에서 가장 자주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더 자주 모욕을 당하며 특히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남자다움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남자아이를 모욕하는 의미로 ‘계집애 같은 놈(cissy boy)’이라고 부릅니다.

14 이 책에서는 용어의 간결성을 위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짧게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트랜스젠더혐오를 포함합니다.

15 Takacs J, (2006), *Social exclusion of you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Europe*. Brussels: ILGA-Europe and IGLYO.

16 Hillier et al., (2010), *Writing themselves in 3. The third national study on the sexual health and well-being of same sex attracted and gender questioning young people*, Melbourne: Australian Research Centre in Sex, Health and Society (ARCSHS), La Trobe University.

17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학교환경조사이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8 Stop Bullying! Canada. <http://stopbullyingcanada.wordpress.com/statistic/>

19 New Zealand AIDS Foundation, Out There, Rainbow Youth, (2004), *Safety in our Schools, an action kit for Aotearoa New Zealand schools to address sexual orientation prejudice*. Wellington: OutThere.

20 Jennett M, (2004), *Stand up for us, challenging homophobia in schools*, UK: Department of Health.

21 Stonewall, (2009), *The Teachers' Report*. http://www.stonewall.org/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4003.asp

다음은 유럽 37개 국가²²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호주의 연구²³에서 발췌한 인용문입니다. 이들 인용문은 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관한 개개인의 경험과 학교당국의 지원부족을 잘 보여줍니다.

“지나갈 때 실실 웃고, 책상 위에 욕을 쓰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런 일이 많아요.”

— 프랑스

“주로 욕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나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고, 소지품을 망가뜨렸어요.” — 헝가리

“나에게 침을 뱉고, 내가 지나가려는데 계속 뒤에서 다리를 걷어차고… 나를 벽으로 내던지고 협박했어요.” — 호주

“신체적 폭력을 당한 건 한번뿐이었어요. 하지만 언어 폭력은 매일 당했습니다.”

— 슬로바키아

“내 지갑을 훔쳐가서 잘라버렸어요. 나를 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 포르투갈

“고등학교에서 나를 계단 아래로 밀기도 하고, 벽으로 밀치기도 했어요.” — 호주

“학교에서 남자 아이들이 나를 계속 괴롭혔어요.” — 포르투갈

“사람들이 게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괴롭히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게이’라고 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죠.” — 뉴질랜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신체적으로 폭행했어요… 선생님들과 학교 간호사가 전부 알고 있었지만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 스웨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항상 동성애혐오적인 모욕을 들었어요… 교장이나 선생님께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이미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죠.” — 프랑스

22 Takacs J, (2006), *Social exclusion of you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Europe*. Brussels: ILGA-Europe and IGLYO.

23 Hillier A, Turner A, Mitchell A, (2005), *Writing themselves in again: 6 years on. The 2nd national report on the sexual health & well-being of same sex attracted young people in Australia*. Melbourne: Australian Research Centre in Sex, Health and Society (ARCSHS), La Trobe University.

아일랜드의 레즈비언 청소년들은 BeLonG To라는 NG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 안팎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여러번 있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신체적으로 폭행당한 적이 세 번 있고요, 저의 섹슈얼리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겪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게이같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은 계속 게이라 불리는데, 제 친구들이 그 아이들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제가 받은 충격은 굉장했고, 이런 행동이 용납되는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자살하려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런 괴롭힘에 대해 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했을 때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해결 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지지네트워크가 생기고, BeLonG To의 청소년 그룹에 소속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지내게 되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나 거리에서 나에게 다이크(dyke)나 퀴어(queer)라고 부르며 고향지르면서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듣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몇 년이 흘러 학교에 괴롭힘을 신고했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지지해줬고 교사들도 저에게 정말 잘 대해 주었어요. 학교에 상담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가했던 또다른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때문에 “저는 학교를 옮기고 싶었어요... 결석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학교를 땀땀이 치거나 학교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자해하곤 했어요. 제가 필요없는 존재라고 느껴졌어요.”

전자통신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사이버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보이는 청소년들이 사이버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경험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괴롭힘 피해자의 약 60%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사이버괴롭힘을 당한 비율이 약간 높을 뿐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이성애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이성애자가 아닌 청소년의 33%가 사이버괴롭힘을 당한 반면, 이성애자인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괴롭힘을 당한 비중은 15% 정도입니다.²⁴ 또한 연구결과, 14세부터 18세 사이에 학교괴롭힘이 50% 가량 감소하는 반면에, 사이버상 괴롭힘은 17%에서 13%로 소폭으로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괴롭힘은 익명의 괴롭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괴롭힘과 다릅니다. 또, 직접 대면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책임감

24 Kessel Schneider et al., (2012), Cyberbullying, School Bully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Regional Census of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1) 171-177.

이나 죄책감이 덜 할 수 있습니다.²⁵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가해자는 보통 학생들이지만, 교사나 다른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헬렘(Helem)²⁶이라는 단체가 레바논의 5개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동료 학생과 교직원들이 가해자가 되어 괴롭힘, 헐뜯, 학습권 박탈 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학생은 대학교수로부터 “너를 내 수업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동료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였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는 개인이거나 소규모 혹은 대규모의 집단일 때도 있으며,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²⁷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가담하고 영향을 받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방관한 학생 등,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서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이,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학생들이 말리지 않거나 무시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 응답자는 다른 학생들이 주동자에 합세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박스 2: 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증거들²⁸

비록 교육기관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제시되는 증거들을 볼 때 이 문제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학생들 중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칠레(68%), 과테말라(53%), 멕시코(61%), 페루(66%)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²⁹ 브라질에서는 게이 남성 중 40% 이상이 학교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³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학교에서 강도높은 언어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며, 가해자가 대부분 동료 학생이지만 교사나 교장인 경우도 있습니다.³¹ 학교중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게이 남성의 68%와 레즈비언의 42%가 학교에서 혐오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10%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³² 요하네스버그의 한 사립중등학교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신공격, 놀림,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 폭행,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간접적 괴롭힘 등, 강도높은 언어적 괴롭힘이 나

25 Juvonen J, Gross EF, (2008) Extending the school grounds? — Bullying experiences in cyberspace. *J Sch Health*. 78(9): 496-505.

26 Helem. <http://www.helem.net/>

27 Kimmel M., Aranson A, (2003), *Men and Masculinities; A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Encyclopedia*. California: ABC-CLIO.

28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자료는 현행 주류 데이터수집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문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관하여 모아진 데이터는 이 주제에 특별히 관심 있는 연구자나 활동가들에 의해 수집된 것입니다. 아래에 인용된 데이터를 그대로 국가간 비교하거나 전국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비율은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서의 비율로서, 설문조사에 편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데이터는 서로 다른 표본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수집도구를 이용해서 수집된 것입니다.

29 Caceres et al., (2011), *Final report: Estudio a través de Internet sobre “Bullying”, y sus manifestaciones homofóbicas en escuelas de Chile, Guatemala, México y Perú, y su impacto en la salud de jóvenes varones entre 18 y 24 años*.

30 UNESCO (Representative in Brazil), (2009). http://www.ypinaction.org/files/01/94/Homophobia_in_schools.pdf

31 Gay and Lesbian Network, (2011), *Homophobia in schools in Pietermaritzburg*. Pietermaritzburg: Gay and Lesbian Network.

32 Behind the Mask, (2010). <http://www.mask.org.za/homophobia-at-schools/>

타났고, 남학생이 피해자가 될 확률과 가해자가 될 확률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학생 중 58%가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일어난다고 하고, 34%는 교사나 교직원들로부터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들었으며, 25%는 때때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³³ 다른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 중 50% 이상이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³⁴

영국에서는 중등학교 교사의 90%와 초등학교 교사의 40% 이상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인신공격,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중등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체중과 관련된 괴롭힘 다음으로 가장 빈번한 괴롭힘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고 합니다.³⁵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살해위험 등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³⁶ 다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인신공격을 당한 적이 있고 55%가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돌아다니는다고 말했습니다.³⁷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300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2002년 교육부 조사에서는 교사의 82%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어적 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26%가 신체적 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열악한데, 이런 학교들에서 게이 청소년의 75%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하여 전체 평균 65%보다 높았고, 학교가 자신들을 받아들일 만큼 포용적이거나 관용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47%로 전체 평균 35% 보다 높았습니다.³⁸

벨기에에서는 지난 3년간 학교를 다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8%가 놀림과 조롱을 경험했고 39%가 인신공격을, 36%가 사회적 고립을, 21%가 협박을 경험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³⁹, 헝가리⁴⁰, 네덜란드,⁴¹ 스페인⁴²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학교에서 전혀 또는 거의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6%이지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학생들 중에서는 35%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학생들 중 38%가 언어적 폭력을, 8%가 신체적 폭행을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합니다.⁴³ 미국에서는 84% 이상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청소년

33 Mayock P et al., (2009), *Supporting LGBT lives: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reland: BeLONG To & GLEN.

34 Minton et al., (2008), An exploratory survey of the experiences of homophobic bullying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young people in Ireland, *Irish Educational Studies*, 27(2):177-191.

35 Stonewall, (2009), *The Teachers' Report*.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4003.asp

36 Stonewall, (2007), *The School Report*.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4004.asp

37 Warwick I, Douglas N, (2001), *Safe for all, a best practice guide to prevent homophobic bullying in secondary schools*. Education Policy Research Unit,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38 Stonewall, *Working with faith communities*. Stonewall education guide.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5761.asp

39 Rebeyrol A et al., (2010), *2008 Rapport sur la prévention des discriminations à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en milieu scolaire*. Paris: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40 Béres-Deák R & Rédei, D, (2011), *Images of Hungarian teenagers about homosexuals – experiences of a school project*. <http://www.sociologija.si/wp-content/uploads/2011/04/Abstrakti.pdf>

41 Dankmeijer P, (2001), *Gerapporteerde onveiligheid door homojongeren vergeleken met heterojongeren*. Amsterdam: Empowerment Lifestyle Services. http://www.edudivers.nl/doc/peters_publicaties/Dankmeijer%20%27Gerapporteerde%20onveiligheid%20door%20homojongeren%20vergeleken%20met%20heterojongeren%27%20%282001%29.pdf

42 Galan et al., (2009), Achieving real equality: A work in progress for LGBT youth in Spain. *Journal of LGBT Youth*. 6(2), 272-287.

43 Pizmony-Levy et al., (2008), Do my teachers care I'm gay? Israeli lesbian school learners' experiences at their schools. *Journal of LGBT Youth*, 5 (2), 33-61.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신공격이나 협박을 당하였고, 40%가 밀어 넘어진 적이 있으며, 18%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⁴⁴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90% 이상이 경멸적인 말을,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였으며, 3분의 2가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⁴⁵ 다른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57%가 학교 교직원들이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⁴⁶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괴롭힘이 늘 일어나며, 특히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하여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⁴⁷ 캐나다에서는 50% 이

상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학생들과 75%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하며 10%는 교사로부터 자주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듣는다고 합니다.⁴⁸

인도와 방글라데시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중 50%가 학교나 대학에서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⁴⁹ 일본에서는 게이 및 양성애자 남성의 83%가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했습니다.⁵⁰ 홍콩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 중 42%가 언어적 폭력을, 40%가 사회적 고립을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합니다.⁵¹ 동성에게 이끌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호주의 전국 조사에서는 61%가 언어적 폭력을, 18%가 신체적 폭력을, 69%가 사회적 배제 등 다른 형태의 동성애혐오성 폭력을 경험했으며, 80%는 이러한 괴롭힘이 대개 학교에서 일어난다고 응답하였습니다.⁵² 학교 내 게이와 레즈비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의 조사에서는 각각 76%, 64%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⁵³

44 GLSEN, (2009),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GLSEN.

45 Greytak E et al., (2009), *Harsh realities: The experiences of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 GLSEN.

46 McFarland W, (2001), The legal duty to protect gay and lesbian learners from violence in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3), 171-180.

47 GLSEN and Harris Interactive (2012), *Playgrounds and Prejudice: Elementary School Climate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of Students and Teachers*. New York: GLSEN.

48 Taylor et al., (2011), *Every class in every school: The first national climate survey on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 in Canadian schools. Final Report*. Toronto: Egale Canada Human Rights Trust.

49 Bondyopadhyay A, Khan S, Mulji K (2005), *From the front line: A report of a study into the impact of social, legal and judicial impediments to sexual health promotion, care and support for males who have sex with males in Bangladesh and India*. Naz Foundation International

50 GayJapanNews, Global Rights et al., (2008), *The violations of the right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rsons in Japan*. A Shadow Report Submitted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http://www.iglhrc.org/binary-data/ATTACHMENT/file/000/000/159-1.pdf>

51 Fridae, (2010). <http://www.fridae.asia/newsfeatures/2010/08/13/10223>. hong-kong-ngo-fights-homophobia-in-schools

52 Hillier et al., (2010). *Writing themselves in 3. The third national study on the sexual health and well-being of same sex attracted and gender questioning young people*. Melbourne: Australian Research Centre in Sex, Health and Society (ARCSHS), La Trobe University.

53 Hendrickson M, (2007), 'You have to be strong to be gay': Bullying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LGB New Zealanders. *Journal of Gay and Lesbian Social Services*, 19(3/4), 67-85. <http://www.youth-suicide.com/gay-bisexual/news/austra.htm#New-Zealand>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으로, 또 다른 형태로 행해지는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⁵⁴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라틴아메리카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⁵⁵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데 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교복정책과 화장실과 같은 것들이 남녀로 나뉘어 있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네팔에서는 13세의 트랜스젠더 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마을학교에서 중퇴한 후 블루다이아몬드소사이어티(Blue Diamond Society)⁵⁶를 찾아왔고, 교육을 받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소사이어티의 도움으로 이 학생은 카트만두의 터버 고등학교(Durbar High School)에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학생으로서 7학년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Times of India, 2011. Nepal's oldest school starts sexual revolution.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하면 다음의 결과가 뒤따른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많은 국가에서 발견됩니다.

- 출석의 감소
- 학교 조기중퇴
- 낮은 학업성적과 교육수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특히 협박, 공공연한 조롱, 소지품 도난의 경험은 결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학생들은 교과서나 준비물, 숙제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수업을 빠지거나 아픈 척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아프지 않은데도 아프다고 말하며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갈 생각을 하면 실제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뉴질랜드⁵⁷

54 UNESCO and UNICEF, (2007),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Education for All*. Paris: UNESCO.

55 Jolly S, (2010), *Poverty and sexuality: What are the connections? Overview and literature review*. Stockholm: SIDA

56 블루다이아몬드소사이어티는 2001년 만들어진 네팔의 NGO단체로, 전국단위에서 카트만두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네팔 성소수자의 성적 건강, 인권,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bds.org.np/aboutus.html>

57 New Zealand AIDS Foundation, Out There, Rainbow Youth, (2004), *Safety in our Schools, an action kit for Aotearoa New Zealand schools to address sexual orientation prejudice*. Wellington: OutThere.

미국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 3명 중 1명 정도가 위협이나 불편을 느껴 자주 수업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온종일 결석한 날이 최소 하루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의 결석률은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보다 3배 가량 높습니다.⁵⁸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괴롭힘의 강도가 높을수록 결석이 증가하고 교육열의가 감소하며 학업성적이 저하됩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거의 절반이 위협과 불편함을 느껴 수업을 빠지고, 6명 중 1명 정도는 괴롭힘을 너무 심하게 당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둡니다.⁵⁹ 영국에서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학생 10명 중 7명이 그 괴롭힘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들 중 50%가 학교를 빠졌고, 20%는 6번 이상 학교를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⁶⁰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아예 중퇴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⁶¹ 예를 들어 미국의 연구에서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한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 중 28%가 학교를 조기중퇴하였습니다.⁶² 북아일랜드 교육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적지향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 중 19%가 예상보다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으며 10%는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일찍 학교를 중퇴하였습니다.⁶³ 아일랜드의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 중 거의 10명 중 1명 꼴로 학교를 조기에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⁶⁴ 2007년 연구 ‘학교친구프로젝트(School Mates Project)’는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영국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무단결석률이 높고, 상급학교 진학율이 낮았습니다. 2006년 프랑스 연구⁶⁵에서는 응답자 중 8%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결과로 학교를 중퇴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나 학교 당국의 입학 거부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참여자 중 45%는 중고등 학교를 중퇴했으며 2.3%만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⁶⁶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설문에 참가한 남성 동성애자의 상당수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

58 GLSEN, (2009),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GLSEN.

59 Greytak E et al., (2009), *Harsh realities: The experiences of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GLSEN.

60 Stonewall, (2007), *The School Report*.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4004.asp

61 Jolly S., (2010), *Poverty and sexuality: What are the connections? Overview and literature review*. Stockholm: SIDA.

62 Telljohann, S.K. and Price, J.H., (1993),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Adolescent Homosexuals' Life Experiences: Ramifications for School Personnel, *Journal of Homosexuality*, 26:1, 41-56.

63 Carolan F. and Redmond S., (2003), *The needs of young people in Northern Ireland who identify as lesbian, gay, bisexual and/or transgender (LGBT)*. Belfast: Youthnet. See also Government of Ireland, (1995). *Charting Our Education Future*. Dublin: Government Publications.

64 Minton, Dahl, O'Moore and Tuck et al., (2008), An exploratory survey of the experience of homophobic bullying amo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ed youth people in Ireland. *Irish Educational Studies*, 27:2 177- 191.

65 *SOS Homophobie, Analyse statistique des résultats de l'enquête sur l'homophobie en milieu scolaire*. http://www.sos-homophobie.org/sites/default/files/analyse_enquete_milieu_scolaire.pdf?q=documents/analyse_enquete_milieu_scolaire.pdf

66 Dubel and Hielkema (eds), (2010), *Gay and lesbian rights are human rights*. The Hague: HIVOS.

해 일찍 교육을 중단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⁶⁷

학교결석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중퇴는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은 자격요건을 덜 갖추게 되고 그 결과 향후 취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따른 자신감 상실, 자존감의 저하, 두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때문에도 학업성적과 교육수준이 저하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 중 26%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12%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때문에 무단결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⁶⁸ 미국에서는 성적지향으로 인해 자주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국의 일반학생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⁶⁹ 브라질에서는 피해 경험이 저조한 교육성과와 연관이 있으며, 동성애혐오성 피해를 당한 경우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⁷⁰ 아래에 기술된 자메이카의 청소년 더빈(Dervin)의 경험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고맙게도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살한 학생이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 학생들에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저는 별로 남자답지 않은 사람인데, 초등학교 시절, 말로 상처받기 쉬운 그 시기에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도심의 고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스스로에게 달라지리라 약속했고 처음 몇 달간은 ‘남자다워’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놀림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고 성적은 곤두박질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주 울었지요. 나를 싫어하는게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하였고, 지금의 내 모습을 바꾸어 달라고 신에게 빌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남자애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저의 외모를 바꾸고 선생님들을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매주 정학을 받았습니다. 8학년 때, 이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친구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괴롭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상처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분명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빈 오스본(Dervin Osbourne)

67 Bondyopadhyay A, Khan S, Mulji K, (2005), *From the front line: A report of a study into the impact of social, legal and judicial impediments to sexual health promotion, care and support for males who have sex with males in Bangladesh and India*. Naz Foundation International.

68 O’Loan S, McMillan F, Motherwell S, Bell A, and Arshad R, (2006), *Promoting equal Opportunities in Education: Project Tivo, Guidance in Dealing with Homophobic Incidents*, Edinburgh: Scottish Executive Education Department.

69 GLSEN, (2009),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GLSEN.

70 Alexander M and Santo J, (2011), Effects of homophobic versus non-homophobic victimisation on school commit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attitudes in Brazilian public schools, *Journal of LGBT Youth*, 8: 289-308.

괴롭힘/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우울, 불안, 자신감 상실, 위축, 사회적 고립, 죄의식, 수면장애 등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⁷¹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해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자살하는 일도 더 많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들이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에 빠지기 쉽다는 증거가 있고, 이것이 출석률과 학업성적의 저조로 이어집니다. 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경우 위험성이 높은 성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아일랜드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⁷² 대부분은 12세에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알게 되는데, 자해를 시작한 평균 연령이 16세였으며, 자살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연령은 17세였습니다.
- 북아일랜드에서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게이 남성들이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전문가에게 보내지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국의 연구에서는 10대 청소년 전체적으로 15명 중 한 명만이 자해를 한 반면, 레즈비언과 양성애자인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절반이 자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⁷³
-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⁷⁴에서 약 10%의 응답자가 괴롭힘으로 삶이 “힘들고 불행”해졌다고 응답했고, 25%가 괴롭힘을 경험한 이후 “불안”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칠레 응답자 중 약 15%는 자살기도를 하였다고 응답했습니다.
-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자살의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즉 괴롭힘을 많이 당한 학생일수록 자살의도 역시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33%가 차별과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⁷⁵

71 Hillier A, Turner A, Mitchell A, (2005), *Writing themselves in again: 6 years on. The 2nd national report on the sexual health & well-being of same sex attracted young people in Australia*. Melbourne: Australian Research Centre in Sex, Health and Society (ARCSHS), La Trobe University; and Taylor et al., (2011), *Every class in every school: The first national climate survey on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 in Canadian schools. Final Report*. Toronto: Egale Canada Human Rights Trust.

72 Mayock P et al., (2009), *Supporting LGBT lives: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reland: BeLonG To & GLEN.

73 Stonewall, (2008), *Prescription for Change*. http://www.stonewall.org.uk/documents/prescription_for_change.pdf

74 UPCH/PAHO, (2011), Estudio a través de internet sobre bullying y sus manifestaciones homofóbicas en escuelas de Chile, Guatemala, México y Perú, (in press)

75 Clements-Nolle K et al., (2006), Attempted suicide among transgender persons: The influence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victimisation, *Journal of Homosexuality*, 51(3): 53-69.

- 네덜란드에서는 게이학생 중 9%, 레즈비언학생 중 16%가 적어도 한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성애자 학생들 중에 자살을 생각한 학생이 30%인 반면, 게이와 레즈비언 학생 중에서는 자살을 생각한 학생이 50%입니다.⁷⁶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것은 가해자도 마찬가지라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들은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고, 다른 또래들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성인이 되어 법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⁷⁷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괴롭힘에 연루된 아동 중 약 절반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며, 이런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⁷⁸ 또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이 언어적 폭력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이들이 느끼는 고통, 모욕감, 분노의 감정 때문임을 밝혔습니다.⁷⁹

2.3 왜 교육부문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처해야 하는가?

많은 국가의 교육부와 교육기관에서 인종, 종교,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에 대처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지 않았고 그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탓도 크지만, 또한 동성애와 비전형적 성별정체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와 과민한 반응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bystanders), 괴롭힘이 일어나는 장소인 학교에 영향을 미치며,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교육상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교육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의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교육권과 ‘모두를 위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며, 안전학교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동성애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부문에서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스 3 참고).

⁷⁶ Keuzenkamp S, (2010), *Steeds gewoner, nooit gewoon. Acceptatie van homoseksualiteit in Nederland*, Den Haag: Sociaal en Cultureel Planbureau.

⁷⁷ Salmon G, James A, Smith DM, Bullying in schools: self reported anxiety, depression, and self esteem in secondary school children, *BMJ* 1996; 317(7163) 924-5; and Olweus D,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 Child Psychol Psychiatry*, 1994; 35(7) 1171-90. Quoted in Kim YS. Bullying and suicide: A Review, *Int J Adolesc Med Health*, 2008; 20(2) 133-154.

⁷⁸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05), *Regional Desk Review: North America*. <http://www.violencestudy.org/r27>

⁷⁹ Geiger B, Fischer M, (2006), Will Words Ever Harm Me? Escalation from Verbal to Physical Abuse in Sixthgrade Classroo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3): 337-57.

박스3: 인권과 교육

인권기반교육의 목표는 모든 아동의 존엄성과 최적의 발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며,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 **교육의 접근성에 대한 권리** — 기회의 평등에 근거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
-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 포괄적이고 실용적이며 포용적인 교과과정과 아동친화적이고 안전하며 건강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잠 재력을 극대화하고 취업기회를 현실화하며 생활기술을 개발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 **학습환경 내에서 존중받을 권리** —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과 참여할 권리를 존중받으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권리기반교육을 시행하면 포용성, 다양성, 기회균등, 차별금지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학교에 가게 됩니다. 또 학생중심의 참여교육이 촉진되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조성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학습을 가능케 하는 기본조건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동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돕게 됩니다. 나아가, 인권을 존중하면 폭력예방에 꼭 필요한 '다름에 대한 존중'이 키워집니다. 인권기반교육을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교사와 학생은 교육과정을 함께 즐기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출처: UNESCO and UNICEF, (2007).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ducation for All*; UNESCO, (2011), *Stopping violence in schools: A Guide for Teachers*.

■ **교육권**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도 드러나듯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보편적 교육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다카르행동계획(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⁸⁰에서도 양질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안전하고 폭력없는 학습환경에 대한 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인권기반교육의 세 가지 요소인 접근성, 질, 학습환경 내 존중을 모두 약화시킵니다.

■ **'모두를 위한 교육'** —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접근성, 지속성, 성취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장애가 됩니다. 이 장에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학교출석률과 조기중퇴율, 학업성적과 교육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타이에 살고 있는 캐스(Kath)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욕구에 대처하지 못할 때 '모두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위태롭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 **차별과 포용**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차별의 한 형태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입니다. 인종, 성별, 피부색, 장애,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가 용납될 수 없는

80 United Nations, (2000),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World Education Forum, (2000),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Paris: UNESCO; UNESCO (2005),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2005*, Paris: UNESCO.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 또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정서적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면 학습환경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발달을 가져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하여 교육기관 내의 포용성 역시 약화됩니다.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이란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다가가 교육기회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찾아내고 대응함을 의미합니다. 포용적 교육을 위해서는 포용적 정책, 포용적 학교환경, 포용적 교과과정, 포용적 교사교육이 필요합니다.⁸¹

“포용지향적인 학교는 차별적인 태도에 대항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⁸²

- **안전한 학교** — 학교는 안전한 성역이어야 하는데,⁸³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안전학교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괴롭힘 때문에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 되고, 다른 학생들도 타격을 입고, 학교환경도 전반적으로 나빠집니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으면 학교기물파손이 증가하고, 교직원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이 많아지며, 또래 간 갈등이 깊어지고,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가장 흔한 반응은 다른 이들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따뜻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안전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81 UNESCO, (2009), *Policy guidelines on inclusion in education*. Paris: UNESCO.

82 UNESCO, (1994), *The Salamanca Statement*. Paris: UNESCO.

83 Education International (2009), *Schools Shall be Safe Sanctuaries: A Declaration by Education International*. http://download.ei-ie.org/Docs/WebDepot/2009_leaflet_Schools-As-Safe-Sanctuaries_en.pdf

저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한번도 남성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남자 옷을 입고 남성의 성역할을 하는 것이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여성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었고,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트랜스젠더, 태국어로는 카토이(kathoey)예요. 우린 스스로를 남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성별 정체성은 성적 지향과는 다른 거예요. 트랜스젠더로서 여자 옷을 입을 순 있지만 그것이 제가 남성에게 끌린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 저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남학생 교복을 입어야 했고, 선생님들은 제가 태어날 때 지어진 남자이름으로 절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장난으로 받아들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공감해주기도 했지만, 제가 과거에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전 수치심을 느꼈고, 저의 종교와 정체성 사이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 했지요. 학생이건 교사건 할 것 없이 저를 따돌리고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태국의 교육 정책은 '모두를 위한 교육'과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예요. 트랜스젠더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고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성평등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학생 교복과 여학생 교복이 나뉘어져 있어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다른 성의 교복을 입지 못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진정으로 나아가려면, 교육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돕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성평등을 옹호한다면 절대로 젠더가 교육의 걸림돌이나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캐스 캉피분(Kath Khangpi boon), 타이 트랜스젠더 연합



3. 행동하기: 개입하고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교육기관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나라의 상황—법과 문화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도 그 동기를 막론하고 안전하지 못한 학교 환경을 만듭니다. 학습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마련된 기존의 폭력과 괴롭힘 예방 정책들을 교육당국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이제 막 대응하기 시작한 나라에서 국가 단위로 할 수 있는 활동과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좋은 정책과 실천 사례는 제4장에서 더 자세히 소개할 텐데, 그 중 일부는 아마도 이 사안에 대한 정책과 활동을 이미 시행해 온 나라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 예시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사례이고,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고 활동의 기초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정책

효과적인 정책은 좋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항하는 정책들이 없는 이유는, 많은 경우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명확한 정책이 없는 이유가 정치적 참여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적다양성이나 성별정체성이라는 주제가 학교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인 경우가 많으며, 정치인이나 종교지도자와 같은 이들의 거센 반발에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기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 근거 자료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교육자, 학부모, 교사연합, 기타 교육관계자들이 나서서 정치적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정책이 없는 나라에서 고려할 주요 단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규모와 특징,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교육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모아 근거 기반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종합적인 전국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덕분에 교육부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또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국가자살 방지전략(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협력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들과 함께 위 근거를 활용하여 교육공무원, 교사연합, 지역사회지도자, 학부모 등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특징, 규모,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합니다.
- 교육당국, 지역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 언론과 함께 작업하면서 지지를 얻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기본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들을 찾고 개발합니다. 비밀보장, 규율, 안전, 학생복지, 시민의식, 포괄적인 성교육, HIV감염 학생들의 권리, 괴롭힘금지, 비폭력 등에 관한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괴롭힘 방지정책이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런 정책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스톤월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기존의 정책들 안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방지 요소를 통합시키는 일을 전개해 왔습니다. 교육적 접근을 채택하고 괴롭힘과 폭력 근절을 위한 기존 활동의 바탕 위에 옹호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 그러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정책개발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는 국제적, 지역적 정책들을 찾습니다(박스4 참조).

박스 4: 국제적, 지역적 정책들

국제규약과 문서들은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를 위한 교육’, 다카르행동계획, 요그야카르타원칙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같은 인권틀이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채택된 정책들과 협약들도 정책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11년, 미주기구(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총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에게 이러한 차별을 예방, 처벌, 근절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2010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47개 회원국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맞서는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유럽평의회 권고(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에서 구체화되었고, 이것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정부 간 협약이 되었습니다.
- 2008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교육부와 보건부 장관들이 ‘예방교육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Educating to Prevent)’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를 만들 대책을 찾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개입

국가차원에서 교사교육과 학교교과과정을 통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는 나라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나라에서조차도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개입방법을 찾아내서 지방교육당국과 학교에 이를 안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교사교육과 학교교과과정의 주요과목의 교재와 내용을 검토하여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 성적 다양성과 성별정체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문제가 교사교육과 학교교과과정의 어느 부분에 포함될 수 있을지 찾습니다.
- 인권기반 접근법에 기초하여 교과과정을 만듭니다.
- 일반적인 괴롭힘에 대처하는 기술을 교사임용 전후교육에서 알려주고,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대응법도 알려줍니다.
- 효과적인 개입의 사례를 수집합니다.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과,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개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시험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제로 개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잠재적인 파트너들을 찾아냅니다. 교사노동조합과 같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있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정책

어떤 국가에서는 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금지하는 별도의 정책을 만들 수 있겠지만,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괴롭힘방지, 폭력예방, 안전학교 정책 속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권, 관용, 존중과 같은 더 일반적인 쟁점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단위에서 고려할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문제와 영향의 정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과 학생들은 모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놀림 사건들을 기록하고, 교직원은 학생의 결석 상태를 파악하고, 학부모는 괴롭힘의 징후를 민감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GALE에서는 설문지와 조사설계 등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유용한 지침과 학교 내 동성애혐오를 측정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설문지를 담은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학교환경조사(School Climate Survey)와 학교안전간편진단(School Safety Quick Scan)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간편진단은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고, 일반적인 학교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직접 다루기 어려운 학교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교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당국,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포용적인 괴롭힘금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권리 중심의 일반적인 괴롭힘금지 정책을 개발합니다.

콜롬비아의 NGO인 콜롬비아 디버사(Colombia Diversa)는 보고타와 메델린의 공립학교와 사립 학교에서 동성애혐오 및 관련된 괴롭힘 사례들을 기록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디버사는 시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성적 다양성과 젠더 다양성에 대한 교육용 비디오와 같은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국캠페인⁸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뿐 아니라 폭넓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교장과 교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고, "학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COC라는 단체가 교육문화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동성애혐오에 대한 학교 이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학교를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도록 이사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COC

84 NGO 'BeLonG To'가 실시한 캠페인.

는 청소년들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로서 학교에서 겪는 경험을 엮은 소책자를 만들었고, 그 결과 동성애혐오를 물리치는데 학교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양해각서에 많은 학교가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개입

정책들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학교가 이 정책들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교장과 교사들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원,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할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안에 젠더를 이유로 한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에 대한 방안을 꼭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젠더 고경관법을 다루는 활동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괴롭힘을 퇴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의 강점과 기회를 찾아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 논의하여 고양하고자 하는 가치를 찾고 명확한 규칙과 책임을 정립합니다.
- 학생이나 교직원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나 발언을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합니다. 동성애가 불법이거나 민감한 사안인 국가에서는 젠더에 근거한 괴롭힘과 발언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 교직원교육을 통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해 인식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개입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동성애가 불법이거나 민감한 사안인 국가에서는 교직원교육에서 폭력예방과 젠더를 이유로 한 괴롭힘 및 발언에 관하여 다루면서,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해야 합니다.
-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밀신고절차를 수립하고, 괴롭힘의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방관학생에 대한 지원을 모두 마련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도록 합니다.
- 안전하지 못한 장소들을 찾아내고, 복도, 학교근교, 체육시설, 쉬는시간 등 교실 밖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놓치는 곳 없이 학교의 모든 곳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 만약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이 있다면, 잘 훈련된 교직원이나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상담이나 멘토링서비스를 구축하거나,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중재서비스나 또래지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고).
- NGO가 가진 전문성을 이용합니다. 국가별 상황을 감안해서, 비폭력, 인권기반, 아동보호, 성소수자 NGO와 같은 적절한 지지집단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단체에 위탁하는 체계를 만들고, 교육기관에서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합니다.

모든 학생이 더 용이하게 학교에 다니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한 높은 자퇴율을 낮추기 위

한 목적으로 GALE에서는 도구를 개발해 왔습니다.⁸⁵ 이 도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시행 도구 - 전략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2. 관리자와 교육당국을 위한 도구 - 이해관계자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도구와 변화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3. 교직원을 위한 도구 - 교직원을 위한 도구와 교사교육 담당자를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4. 학생을 위한 도구 - 학생활동과 참여의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5. 학부모를 위한 도구 - 학부모를 위한 정보와 학부모의 참여를 끌어내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GALE은 또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정책과 조치를 도입할 때 생기는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하여 실용적인 조언들도 개발했습니다(박스 5 참조).

박스 5: 학교의 변화에 대한 반발에 대처하는 방법

- 사안의 시급성을 알립니다(학교운영진이나 지도자에게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이며, 하지만 해결가능한 것이기도 함을 설득합니다)
- 내부적 연대를 형성합니다(가능하면 관리진 중 대표자, 안전담당자 및 케어 코디네이터, 관심있고 열정적인 교사 몇 명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비전을 세웁니다(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과 지원에 관하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학부모와 학생의 비판적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교직원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공식적/비공식적 교과과정, 수업, 규율, 학생지원, 학교 모든 곳에서의 안전)
- 교직원이 당면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지원합니다(집단토론, 교육, 지도, 개별조언)
- 단기적인 성공들을 반드시 알리고 보상합니다(재미있는 수업, 학생들로부터의 열광적인 반응, 고무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교사와 학생에 대한 칭찬)
- 개선된 것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킵니다(효과적인 개입들을 정규수업과 정규활동 속에 통합시키고 학교활동에서 일상적인 부분이 되도록 합니다)
- 변화를 정착시킵니다(신입 교직원이나 신입생들이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교사를 위한 입문용 연수를 실시하거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풍과 지침을 소개하거나, 지침, 절차, 교과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GALE, (2011), *GALE toolkit working with schools 1.0: tools for school consultants, principals,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to integrate adequate attention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topics in curricula and school policies*. Amsterdam: GALE.

85 Dankmeijer P (editor), (2011), *GALE Toolkit Working with Schools 1.0. Tools for school consultants, principals, teachers, learners and parents to integrate adequate attention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topics in curricula and school policies*. Amsterdam: GALE The Global Alliance for LGBT Education. www.lgbt-education.info



4. 좋은 정책과 실천 사례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근절하려면 예방과 대응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나라에 이미 괴롭힘 문제를 다루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 조치를 활용하여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등 구체적인 형태의 괴롭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와 경험을 통해 보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교육부문의 효과적인 대응은 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 정책
- 교과과정과 시행
-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
- 협력과 연대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괴롭힘의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국가와 지방, 학교 단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때의 정책은 학교환경, 교직원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기술과 역량, 교과과정 등을 포괄하는 체계전반

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지적이고 안전한 환경, 괴롭힘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환경을 만들려고 할 때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부처와 학교들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국가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려면 우선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며, 교육당국, 학교이사회, 교장의 지지와 열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 교사의 열의, 자신감, 지식, 태도, 기술에 따라 대응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학교 교과과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도 중요한데,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도 있고, 동성애혐오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혐오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교과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나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교과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지는 그 나라의 상황과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과 목격학생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그 나라의 상황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달려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전략적 협력과 연대는 교육기관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활동을 기획, 실행, 감독할 때 교육관리진, 교장, 교사, 교직원, 교사노동조합, 학생회, 학부모, 학부모교사연합,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지역사회들을 아우르는 것은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데 핵심적입니다.

각 영역에서의 활동이 모두 각각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역들을 넘나드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례와 함께 각 영역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4.1 정책

이 절에서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 학교 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 유형의 예를 제시합니다.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예도 함께 제시합니다.

전국 및 지방 정책과 프로그램

나라마다 전국 단위와 지방 단위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적인 것도 있고 교육부문에 특정하게 마련된 것들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한 헌법, 법률, 차별금지정책
- 특별히 교육부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응하는 정책
- 학교 내 괴롭힘과 폭력에 일반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학교를 장려하는 정책
- 구체적으로 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정책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한 헌법, 법률, 차별금지정책

네팔과 홍콩 네팔대법원⁸⁶과 홍콩상소법원⁸⁷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최근 필리핀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해 일부 상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⁸⁸

남아프리카공화국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며, 평등법(Equality Act 2000)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범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의 ‘교육에서의 사회통합과 평등부서(Social Cohesion and Equity in Education Unit)’가 담당한 과제의 하나는 교육제도 내에서 헌법적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2011년에는 학교운영책임자들을 위한 교육매뉴얼 〈행동하는 가치(Values in Action)〉를 발간하였는데, 그 중 한 섹션이 성적지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전국종교지도자포럼(National Religious Leaders Forum)과 공동으로 ‘교사지침서: 책임감 있고 인도적인 학교문화 조성하기(Building a culture of responsibility and humanity in our schools – A guide for teachers)’를 발간하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응하는 정책

대만 젠더평등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 2003)에서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고, 젠더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교과과정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게이, 트랜스젠더, 임신한 학생들을 ‘취약한’ 학생으로 보고 특별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⁸⁹

미국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입법담당부서에서는 학생차별금지법(Student Non-Discrimination Act)의 제정을 강력히 옹호해왔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실제 또는 의견상 보이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때문에 일어나는 차별이나 괴롭힘을 공립학교에서 금지하는 포괄적인 연방법이 될 것입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기구 중 사회통합사무국(Secretariat for Social Inclusion)은, 공공부문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한 대통령령 제 56호의 시행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국은 교육부와 함께 괴롭힘

86 *Babu Pant and others v Government of Nepal and others* (2007), Nepal Supreme Court

87 *Leung T.C. William Roy v. Secretary of Justice* (2006) 4 HKLRD 211, Hong Kong, SAR, China, Court of Appeals.

88 House Bill 1483: *An Act Defin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and Providing Penalties Therefore.*

89 *Caceres C et al., (2009), Review of legal frameworks and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related to sexual diversity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Geneva: UNAIDS.



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동성애혐오성 차별과 괴롭힘 사건들에 대응하도록 교장들을 독려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영국 영국은 안전학교에 관한 기존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학교정책(Safe School Policy)이라는 기본틀 안에서 작업하였기 때문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종교기반단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들은 이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정부는 이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응팀(Anti-Bullying Team)은 스톤월이라는 NGO와 함께 학교를 위한 괴롭힘방지 지침을 준비하고 있고, 공식학교 감사기구에서는 이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섹슈얼 학생들에 대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이들의 안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⁹⁰

브라질 동성애혐오 없는 브라질 프로그램(Brazil without Homophobia programme)은 2004년 브라질 정부 주도로 착수하여 이후 재정지원을 받는 부서로 발전되었습니다. 교육부

⁹⁰ Ofsted, (2012), *The Framework for School Inspection*. <http://www.ofsted.gov.uk/resources/framework-for-school-inspection-january-2012>

실행계획에는 4개의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 프로그램(School without Homophobia programm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 동성애혐오 근절’을 주제로 국가지도자, 사회운동조직가들과 함께하는 지역회의, 수도권 학교 내 동성애혐오 상황에 대한 질적 조사, 학생과 교육전문가 대상 동성애혐오관련 훈련도구 개발에 주력합니다. 특히 성적 다양성과 젠더 다양성을 포함하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하는 것과 교육자들이 새 교과과정을 가르치고 교실을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환경 내 동성애혐오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조직을 통하여 교사들을 결집시켰습니다. 청소년들은 지방, 지역, 전국적 자문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위 두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학교는 교육법(Education Act 2000)과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 2000-2008)에 입각하여 운영되며,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고 이 때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⁹¹

이스라엘 교육부는 포용교육을 제도전반으로 확대하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과 도구를 교육자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09년에 교육부 장관은 동성애혐오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모든 사람은 두려움 없이, 혐오나 조롱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2011년 5월에 교육부는 모든 교장들에게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⁹²을 기념하면서 교육부 상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교육활동과 지원을 이용하고 NGO들과 협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핀란드 교육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자료들은 각 학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⁹³

91 GLE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2001), *Lesbian, gay and bisexual students in post-primary schools, guidance for principals and school leaders*, Ireland: GLSEN.

92 IDAHO. <http://www.dayagainsthomophobia.org/IDAHO-english,41>

93 LGBT Youth Scotland, (2011), *Challenging homophobia together, research report and a guide to developing strategic partnerships in education*, Scotland: LGBT Youth.

몇몇 국가에서는 안전학교와 차별금지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책이 개발되었고, 이 가운데에는 학생들 사이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폭력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스6 참조). ‘안전학교’와 ‘차별금지’라는 접근방법을 통해 사회적 논란 없이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를 교육부와 각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지방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괴롭힘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포괄적인 법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주(州)에 속한 학교에서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더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호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단위에서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와 ‘차별금지 및 동성애혐오금지’를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학교 단위의 동성애혐오금지 정책과 사회적 지지가 최상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밝혀졌습니다.⁹⁴

박스 6: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모범적 교육구 정책

미국의 GLSEN은 모범적 교육구 정책을 개발하여, 성별정체성이나 젠더표현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포용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양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책임** — 각 교육구와 학교는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별이나 폭력 또는 괴롭힘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리며 학생과 교사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피해신고가 있을 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차별, 괴롭힘, 폭력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이름과 복장** — 학생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학교의 복장규칙 범위 내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옷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트랜스젠더나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엄격하게 학교복장규칙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 **성별분리 공간 및 활동** — 학생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화장실을 선택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적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식 기록** — 학교 기록이나 문서에 학생의 법적 이름과 성별을 기재해야 하는 법적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는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성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문서가 아닌 학생증에는 학생이 원하는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생활과 비밀보호** — 학생을 포함하여 누구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인 사실이 학교에서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해당 교육구는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⁹⁴ Jones T, (2011), *Sexual subjects: GLBTIQ student subjectivities in Australian Education Policy*, Unpublished thesis, La Trobe University.

않는 학생과 관련된 모든 의료기록을 해당 주, 지방,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나 해당 학생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학생의 정보를 부모나 타학교 직원 등 제삼자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트랜스젠더와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젠더표현을 드러내 이야기하고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 누구와, 어느 정도로 자신의 사적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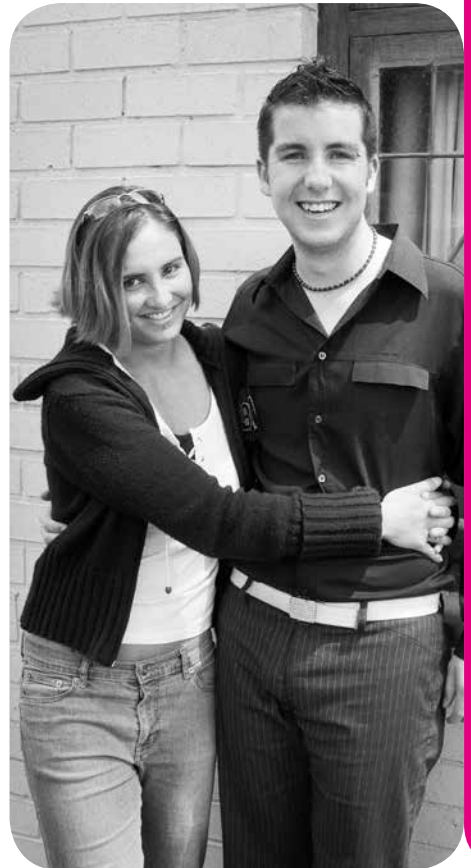
- **연수와 전문보수교육** — 교육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관련 교직원이 괴롭힘, 폭력, 차별을 예방하고 발견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보수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수 있는데,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괴롭힘 방지 전략; 괴롭힘을 중지시키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전략; 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복잡한 상호관계와 힘의 불균형에 관한 정보; 트랜스젠더나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과 같이 특히 학교 내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된 특정 학생집단에 대한 정보 등 괴롭힘에 대한 연구결과들; 사이버괴롭힘의 발생빈도와 특징 및 사이버괴롭힘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안전문제들에 관한 정보.

학교 정책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은 일반적이고 어떤 정책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
- 성적 다양성을 포함한 다양성에 대한 정책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정책

대부분 국가의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흔한 형태는 일반적인 괴롭힘방지 정책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 인종, 종교와 관련된 괴롭힘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폭력, 괴롭힘, 차별, 학교안전에 대한 기존의 정책들을 그 시작점으로 하여 학교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인권이라는 더 넓은 맥락 안에서 학교 내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7>은 효과적으로 괴롭힘을 방지하는 학교 정책 및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박스 7: 효과적으로 괴롭힘을 방지하는 학교 정책과 프로그램의 특징⁹⁵

- 아동의 태도와 행동이 고착되기 전, 아직 어릴 때 시작합니다.
-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괴롭힘방지 정책 안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 교장, 교직원, 학생, 부모,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학교의 괴롭힘방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게 합니다.
- 교직원 교육과 적절한 외부전문인력 활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예방전략을 개발합니다.
-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징계를 결정하고, 가해자를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명확한 행동계획을 정책 속에 반드시 포함합니다.
- 학교 내 또는 지역 내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 비밀신고 제도를 구축합니다.
- 모든 교직원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나서고, 모든 형태의 괴롭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 교직원지침서, 학교안내서, 참관행사, 학부모회의 등 안에서 괴롭힘방지 정책이 눈에 띄게 합니다.⁹⁶
- 학생들의 행동을, 특히 괴롭힘이 일어난 것 같은 증거가 있을 때,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미국의 GLSEN이 설계한 모든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목적을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가 학생복지를 향상하도록 하는데 두고 구체적인 학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전문가와 행정가들의 관심과 우선순위에 부합합니다(다음 절의 지지적 학교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 참고).

학교, 교사, 학생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버밍햄시의회는 ‘괴롭힘줄이기 활동모임(Bullying Reduction Action Group)’을 만들고, 괴롭힘방지활동에 참여한 학교들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⁹⁷

태국 치앙마이외의 스리타나 상업기술대학(Srithana Commercial and Technology College)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의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학교정책, 남녀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 화장실, 학생들이 만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레인보우 클럽 등을 만들었습니다.

95 이 특징은 다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2006),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UN. <http://www.unicef.org/violencestudy/reports.html>. 다음 자료도 참고하세요: Green M, (2006), *Bullying in Schools: A Plea for a Measure of Human Rights*, *Journal of Social Issues*, 62(1): 63-79; and Smith P. et al. (Eds) (2004), *Bullying in Schools: How Successful Can Interventions B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6 Jennett M, (2004), *Stand up for us, challenging homophobia in schools*, UK: Department of Health.

97 Allens Croft Primary School. <http://bham.webschools.co.uk/allenscroft/achievements.htm>

일부 국가에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다양성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박스 8 참조). 예컨대, 호주에서는 학교환경, 학생복지활동, 지역사회연대, 강의와 학습, 학교전략계획에서 성적 다양성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학교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학교 감사와 성적 다양성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습니다.⁹⁸ 이러한 방법이 모든 국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래에 정리된 특징들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스 8: 효과적인 다양성 정책을 가진 학교들의 특징

- 학교가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명료한 규칙을 학년 초에 정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이 규칙을 집행합니다.
- 학교가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 상호적 지지를 조성합니다.
- 학교가 열린 태도를 장려합니다.
- 학교가 젠더, 다양성, 차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불만처리절차와, 가급적이면 접수된 불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차별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신고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돕는 방법을 잘 아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차별금지와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학생과 교사의 주도적 활동이 환영받습니다.

출처: Dankmeijer, P (editor), (2011), *GALE Toolkit Working with Schools 1.0. Tools for school consultants, principals, teachers, learners and parents to integrate adequate attention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topics in curricula and school policies*. Amsterdam: GALE The Global Alliance for LGBT Education.

많은 단체들에서 학교가 다양성 정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돕는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에듀드라이버(EduDrivers)와 전국 이성애자-동성애자 교육연대(National Hetero-Homo Education Alliance)는 학교가 적절한 다양성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박스9 참조). 물론 모든 학교에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상황에 맞게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⁹⁸ Australian Research Centre in Sex, Health and Society, *How to support sexual diversity in schools: A checklist*, Melbourne: La Trobe University. <http://www.latrobe.edu.au/arcshs/downloads/arcshs-research-publications/SexualDiversityChecklist.pdf>

박스 9: 학교 다양성정책 진단 체크리스트

1. **학교 비전.** 학교가 다양성과 차별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교직원들이 이를 알고 고취한다.
2. **괴롭힘 및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비전 공유.** 부적절한 행동, 폭력, 일반적인 괴롭힘과, 특별히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할지 학교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교직원들이 이를 알고 고취한다.
3. **젠더에 관한 교육.**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남녀평등대우를 가르치고 정형화된 성역할에 문제제기 한다.
4. **차별에 관한 교육.**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람에게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차별에 관한 수업을 제공한다.
5. **부적절한 행동에 즉각 대응.** 교직원은 부적절한 행동과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즉시 교정하며, 학교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명확하게 합의된 방침을 가지고 있다.
6. **동성애혐오에 대한 단호한 거부.** 부적절한 행동이 용인될 수 없음을, 특히 성적지향이나 외견상 보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이나 교사가 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인신공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힌다. 부적절한 행동을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설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7. **문제에 대처할 상담교사.**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상담교사 또는 멘토가 학교에 있다. 상담교사를 찾는 학생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일 수도 있고, 동성애혐오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대응방법을 배우고 행동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다.
8. **체계적인 정책.** 학교관리자는 부적절한 행동의 예방과 억제, 다양성 존중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자, 교직원, 학생의 인식을 높이고 활동을 이끌어내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계획은 학교안전, 시민의식, 긍정적 사회행동, 차별금지라는 더 넓은 범위의 정책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9. **학생들을 위한 지원.** 자신의 성적지향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방법에는 도덕적 지지, 정보제공, 또래지지에 대한 토의, 학교행정상 성명과 성별의 정정,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화장실 배정, 공동사위장 이용에 따른 불편함 해소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0. **학교개선운동에 대한 지원.** 학교관리자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Gay Straight Alliances)'를 만들 것을 장려한다.

몇몇 국가의 경우, 학교의 괴롭힘금지 정책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정책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듣는 일이 더 적고, 성적지향과 연관된 피해를 경험했다라도 그 정도가 더 약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성애혐오성 발언이 있었을 때 교직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학생들 역시 괴롭힘금지 정책이 일반적이거나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괴롭힘이나 폭력 사건을 교직원에게 보고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⁹⁹

⁹⁹ GLSEN, (2009),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GLSEN.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학교에 명확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금지 정책이 있으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학생들이 교내 폭력을 보고하는 일이 더 적습니다.¹⁰⁰ 이러한 정책의 홍보와 시행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는 것, 동성애혐오적 욕설이나 폭력을 덜 당하고, 자신이 환영받는다 느끼는 포용의 공간으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동성애혐오 때문에 자해를 생각하거나 감행할 확률과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할 확률을 아주 크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¹⁰¹

지지적 학교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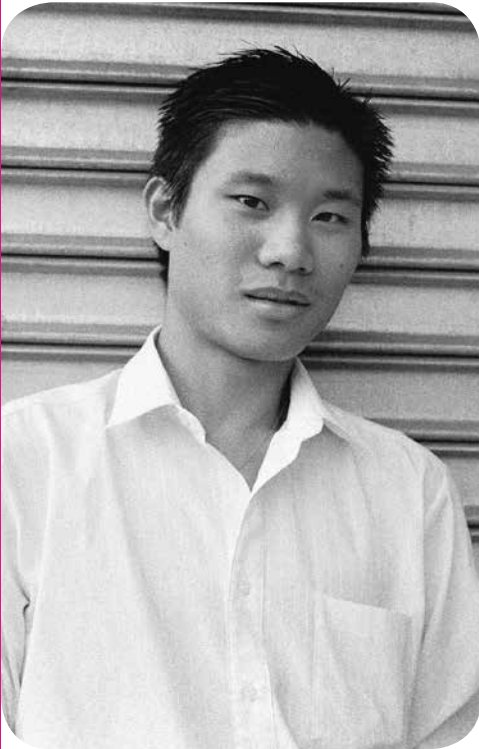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학생들은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도 배웁니다. 교장, 교사, 직원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 학교환경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구나 교직원에 대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나 발언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교장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공동체 전체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폭력이나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에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동성애가 불법이거나 민감한 이슈인 국가나, 괴롭힘을 문제시 여기지 않는 국가, 특히 어린 학생들과 관련된 경우조차도 괴롭힘을 문제 삼지 않는 국가에서는 학교분위기를 다루면서도 괴롭힘에 특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 등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은 교육자와 학교 운영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인만큼, 이런 식의 시작은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분위기를 만드는 네가지 주요 요소(박스10 참조)를 다루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100 GLE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2001), *Lesbian, gay and bisexual students in post-primary schools, guidance for principals and school leaders*, Ireland: GLSEN.

101 Jones T, (2011), *Sexual subjects: GLBTIQ student subjectivities in Australian Education Policy*. Unpublished thesis, La Trobe University.



박스 10: 학교분위기를 만드는 네가지 주요 요소

안전

- 규칙과 규범
- 신체적 안전
- 사회적, 정서적 안정

수업과 학습

- 학습 지원
- 사회성 및 시민성 학습

대인관계

- 다양성 존중
- 사회적 지지 - 성인
- 사회적 지지 - 학생

교육 환경

- 학교와의 유대/참여
- 리적 환경

출처: Cohen, J., McCabe, E.M, Michelli, N.M & Pickeral, T. (2009), School Climate: Research, Policy, Teacher education and Practice, *Teachers College Record*, 111(1) 180-213. [org/climate/documents/policyscan.pdf](http://climate/documents/policyscan.pdf)

아래에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지만(박스 11 참고), 우선순위나 시작점은 국가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박스 11: 안전공간 조성

교육기관 내의 안전공간이란 학생들이 아무런 위험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학교당국이나 학생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폭력이 용인되지 않고, 자기표현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상호간의 존중과 존엄이 장려되는 장소로 학교 내에 안전공간을 조성해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상담과 또래 지지를 위한 장소로 안전공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안전공간은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키고 자존감과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⁰²

예를 들면, 미국의 GLSEN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안전공간 조성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콩소년녀 동아리연합(Boys and Girls Clubs Association of Hong Kong)이 학교와 청소년센터에서 상담과 안전공간을 제공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풀뿌리운동단체들이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위해 '중앤아웃(Jong & Out)'이라고 불리는 온오프라인의 안전공간을 만들었습니다.

¹⁰² Mayberry M, (2006), School reform efforts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students, *The Clearing House*, 79(6), 262-264; Russell S, McGuire J, Laub C, and Manke E, (2006), *LGBT student safety: Steps schools can take*, (California Safe Schools Coalition Research Brief No. 3). San Francisco: California Safe Schools Coalition; Harris Interactive and GLSEN, (2005), *From teasing to torment: School climate in America, a survey of teachers and learners*. New York: GLSEN.

지리적 환경 조성 전략에는 교실에서의 교사활동과 학생 스스로의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실안팎에서 동성애혐오성 언어와 폭언을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GLSEN은 학교 내의 동성애혐오성 인신공격에 대응하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ThinkB4-YouSpeak)’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했습니다. 영국의 스톤월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근절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학교용 활동도구가 있어서 교사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교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 조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박스 12 참고).

박스12: 안전하고 지지적인 교실환경 조성을 위한 실용적 조언들

- 인신공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기존의 괴롭힘금지 정책과 연계시킵니다.
- 인신공격에 즉각 대응합니다.
- 학생의 섹슈얼리티나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추측하지 않습니다.
-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좋은 롤모델들을 수업에서 다룹니다.

출처: New Zealand AIDS Foundation, Out There, Rainbow Youth. (2004) Safety in our Schools: An action kit for Aotearoa New Zealand schools to address sexual orientation prejudice. Wellington: OutThere

학생들 스스로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학생지원에 관한 절 참고).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어떤 행동이 괜찮고 어떤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업을 방해하는지 파악해서 교실 내 윤리강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침서를 만드는 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박스 13 참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괴롭힘금지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대개 인권이나 다른 주제의 행사들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이었던 영국의 한 학교에서는 괴롭힘금지 활동단을 꾸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역사의 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학교운영위원들의 지원으로 교내조회시간에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여 다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¹⁰³ 또 다른 예로는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의 설립 등을 통한 포레지지가 있습니다(학생지원에 대한 절 참고).

¹⁰³ Stonewall, *Stonewall education guide: Working with faith communities*. http://www.stonewall.org/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5761.asp

박스 13: 청소년들과 함께 지침서 개발하기

청소년들 스스로가 개발한 포용적 교육을 위한 실무지침서의 내용:

- 인권교육
- 성교육과 감성교육
- 교과과정과 교재
- 괴롭힘금지 정책 및 기타 포용정책
- 정보와 지원 이용
- 학교 외부와 지역사회의 지원
- 네트워킹
- 안전한 환경
- 주류화
- 교내 민주주의

출처: IGLYO (2007), *Guidelines for an LGBTQ-inclusive education*.
http://www.iglyo.com/content/files/educational/IGLYO_Educational-Guidelines.pdf

4.2 교과과정과 수업

교사와 교직원의 역할

교사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과 보내며,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롤모델이나 멘토가 될 수 있으며, 건강한 학교환경을 옹호하는 중요한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역할 외에도, 어떤 형태로든 포용력을 높이고 차별을 없애는데 보다 폭넓은 역할을 합니다. 학교 내 상주하는 성인이 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콜롬비아의 한 조사에서는 학교시설 이용을 통제하는 경비직원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 전체가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지지할수록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욱 안전함을 느끼고, 결석이 감소하며, 성적이 향상되고, 학습의욕이 고무되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향상됩니다.¹⁰⁴ 미국의 조사에서는, 교사들이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폭력과 자살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에 더욱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¹⁰⁵

104 Kosciw JG, Greytak EA, and Diaz EM, (2009), Who, What, Where, When, and Why: Demographic and Ecological Factors Contributing to Hostile School Climate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8(7), 976-988; Hunt, R. and Jensen, J, (2007), *The experiences of young gay people in Britain's schools*. The School Report, Stonewall, UK.

105 Russell et al., (2010), Safe Schools Policy for LGBTQ Students, *Social Policy Report*, 24 (4):1-24

그러나 교사도 한 개인으로서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가치와 신념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어서, 젠더규범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해 의식적든 무의식적으로든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¹⁰⁶ 교사들이 다른 형태의 괴롭힘에 비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유럽의 경우, 학교 내에서 안좋은 일을 당했던 학생 중 14%가 교사를 문제의 근원이나 일부로 꼽았습니다. 이 중에는 교사가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커녕, 괴롭히는 학생들과 같은 편이라 여겨지는 소극적인 외부인처럼 느껴졌다고 말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와주거나 지도하지 못했거나”, “전혀 지지해주지 않았던” 교사들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¹⁰⁷

이스라엘에서는, 학생들이 교직원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교사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혐오성 욕설을 말리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보다는 급우들이 나서서 도와줄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중등교사 5명 중 2명 이상, 초등교사 10명 중 3명 이상이 다른 교직원의 동성애혐오성 언어나 부정적인 발언을 들어 봤습니다. 동성애혐오성 말을 들으면 항상 대응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7%에 불과했고,¹⁰⁸ 다른 설문에서는 레즈비언과 게이 학생 중 62%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교사에게 알린 후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¹⁰⁹

“9살 때 제가 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렸지만, 엄마가 체포되지 않으려면 매일 학교에 가야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예 몰랐고, 그 때문에 학교를 일곱 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게이인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연애에서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뒤 철학을 공부했고, 아이들의 삶에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재직 중인 학교에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무관심하거나, 대처 방법을 모르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 문제와 싸우기로 한 것은 고통받았던 것에 얽매이기 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클레버 파비오 올리베이라 멘데스(Kleber Fabio de Oliveira Mendes)

106 O'Higgins-Norman J, (2009), Straight talking: Explorations on homosexuality and homophobia in secondary schools in Ireland. *Sex Education: Sexuality, Society and Learning*, 9(4):381-393. O'Higgins-Norman J, (2008), Equality in the provision of social, personal and health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Ireland: The case of homophobic bullying? *Pastoral Care in Education*, 26(2):69-81.

107 Takacs J, (2006), *Social exclusion of you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Europe*, Brussels: ILGA-Europe and IGLYO.

108 Stonewall, (2009), *Homophobic bullying in Britain's schools, the teachers' report*.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5761.asp

109 Dennel B and Paterson E, (2011), *Challenging homophobia together, research report and a guide to developing strategic partnerships in education*, Scotland: LGBTI Youth Scotland.

학교에서 괴롭힘을 경험해 본 브라질의 한 젊은 게이 교사는 교사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사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껴거나, 개입하면 자신이 표적이 될까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서는 교사 중 41%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다른 형태의 괴롭힘보다 더욱 다루기 힘든 문제로 인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비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나, 학부모, 동료교사 또는 학교관리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¹¹⁰ 영국에서는, 중등학교 교직원 가운데 40%가 성적 다양성 문제에 관하여 정보, 조언, 지도를 제공할 자신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장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대응에 확실한 지도력을 보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중등교사 5명 중 2명, 그리고 초등교사의 절반 이하(46%)에 불과했습니다.¹¹¹ 스웨덴에서는, 교사 중 8%만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문제를 교사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교장의 리더십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교사들 역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문제와,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교육과 교사용 수업자료

교사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지식, 자신감,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임용전 교육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의 교육경험 거의 전부가 재직중 연수나 평생직업개발교육을 통해서였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과 교사용 수업자료의 예시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모든 직원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 지원은 학교상담교사, 양호교사, 교사-학생대표에게 특히 중요하지만, 보다 넓은 범위의 학교 공동체에도 중요합니다.

영국 내 “스톤월의 모두를 위한 교육(Stonewall Education for All)” 캠페인은 여러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는 교사와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교 내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종합 연례 벤치마킹 활동, 즉 교육평등지표 (Education Equality Index)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 결과, 초기 교사교육 때에 성적 다양성과 괴롭힘을 주제로 하는 토론식 수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스톤월은 교사교육기관으로부터

¹¹⁰ Norman J. (2004), *A survey of teachers on homophobic bullying in Irish second-level schools*. Dublin: School of Education Studies, Dublin City University.

¹¹¹ Stonewall. (2009), *The Teachers' Report*.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4003.asp

재정지원을 받아, 초기교사교육 담당자용 가이드를 만들었고,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¹¹² 2009년 교사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의 90%는 교직원에게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레즈비언과 게이 이슈가 학교에서, 또는 특별 수업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수업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중등학교 교사 4명 중 3명, 초등학교 교사 3분의 2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답했고, 수업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었던 교사 중 95%가 다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¹¹³

미국에서는 괴롭힘 대응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초등교사들의 경우 괴롭힘이나 폭력 사건에 개입한다고 응답하며, 대부분 개입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사들에게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연관된 다양성 등 개인, 가족, 문화의 차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GLSEN에서는 ‘제자리에, 준비, 존중(Ready, Set, Respect)¹¹⁴’이라는 학습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습도구는 교사들이 존중에 대해 가르치는 방식을 고민할 때 유용하며, 포용을 위한 조언과 무례한 행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학년별 수업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는 유럽 10개국에서 ‘다양성이 필요해요: 학교 내 동성애혐오와의 전쟁(It takes all kinds - fighting homophobia in schools)’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NGO, 청소년, 교사들이 함께 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는 초중등 교사를 위한 교육용 도구도 개발했으며, 여기에 수업방법과 학습도구, 차별금지 활동, 학교 조직, 효과적인 불만처리절차 등을 담았다.

GALE 역시 교사교육 개발지침을 제공하는 도구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교육의 성취가능한 목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박스 14 참고)과 교사교육에서 다룰 만한 내용(박스 15 참고)을 제시합니다.¹¹⁵

박스 14: 교사의 자질

초보자	상급자	전문가
지식 - 기초적 사실 이해	지식 - 정황 속에서 사실 파악	지식 - 더욱 깊이 있는 이해 추구
태도 - 자신을 관용적인 사람으로 인식	태도 - 이성애적 젠더규범의 영향 인지	태도 - 변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독자적 역할 탐색
계획 - 한 가지 프로그램 선정	계획 -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계획 - 강화된 방안 개발
실행 - 프로그램 실시	실행 - 자체 프로그램 개발	실행 - 자신의 약점 보충 및 타인에 게 교육 제공
반성 - 성공적인 점과 힘든 점 파악	반성 - 부정적 피드백 통해 학습	반성 - 체계적으로 영향 평가

112 Stonewall, (2011), *Initial Teacher Training: Developing an inclusive programme of study*. 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teacher_training/default.asp

113 Stonewall, *Education for All*.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default.asp

114 GLSEN, (2012), *Ready, Set, Respect: Elementary School Toolkit*. New York: GLSEN.

115 Dankmeijer P (editor), (2011), *GALE Toolkit Working with Schools 1.0. Tools for school consultants, principals,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to integrate adequate attention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topics in curricula and school policies*. Amsterdam: GALE The Global Alliance for LGBT Education. www.lgbt-education.info

박스 15: 교사교육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교사교육은 임용 전이나 재직 중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임용 전 교육은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 인권, 포용, 차별금지
-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문제와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다양성에 대한 기본 지식
- 개인적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숙고와 언어 사용이나 수업방식이 어떤 식으로 동성애혐오와 차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숙고
- 강의방법, 학습도구, 실제 교실활동 등 기술과 역량
- 비차별적 교육방식
- 현실성 있는 활동계획
- 교실이나 학교환경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방지와 대응
- 어렵고 대립적인 상황,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종교적 주장,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학생들, 비판적인 학부모나 지역사회 지도자, 동료교사나 학교운영진의 지원부족 등의 난제에 대응하기

교사교육의 결과로 교사는 어떤 역량을 습득해야 할까요?

교육을 통하여 교사들은 다음을 할 수 있는 지식, 자신감, 기술을 키워야 합니다.

- 언어폭력과 무례한 태도를 포함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합니다.
- 섹슈얼리티, 성적다양성, 괴롭힘에 대해 학생의 연령에 맞는 토론식 수업을 운영합니다.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련된 다양성 등 개인, 가족, 문화의 차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 괴롭힘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 반드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합니다.

GLSEN은 또한 교육담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담고 있는 유연한 교육의 틀을 고안했습니다.¹¹⁶ 다른 단체들에서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교과과정 안내서를 개발했습니다. 미국의 NGO 그라운드스파크(Groundspark)에서는 연령별에 맞게 동성애혐오를 주제로 다양성과 괴롭힘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초/중/고등학교 수업용 영상물 시리즈를 만

116 GLSEN. <http://www.glsen.org/cgi-bin/iowa/all/educator/index.html>

들었습니다.¹¹⁷ 스페인의 단체들은 이와 같은 이슈를 역사, 문학 및 기타 과목에서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했습니다.¹¹⁸

GALE은 교사교육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필요성과 평가 작업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학생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졌던 드문 사례 중 하나가 호주에서 개발된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이라는 교사연수 패키지입니다.¹¹⁹ 이 패키지는 교사용 매뉴얼과 교실에서 상영할 영상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회분의 수업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특정 수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변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다름과 또래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다름”과 그에 대한 반응을 다루는데,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떻게 다른지, 다르다는 것이 괴롭힘의 경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수업들에서는 젠더에 대해,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 동성애혐오에 대해, 그리고 학교와 교실에서의 동성애혐오와 맞서기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호주에서도 빅토리아 주에서는 정부지원으로 ‘안전한 학교 연대(Safe Schools Coalition)’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GLSEN에서 뉴욕시 교육부의 중등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모두에 대한 존중(Respect for All)’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구 내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교직원이 최소한 한 명 근무하도록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가 결과,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교사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이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적절한 용어에 대한 지식이 늘었고, 자신의 수업방식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에 대한 자각이 높아졌으며, 학생들과의 공감이 증가했고,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를 지지하고, 이 이슈의 교과과정 내 통합을 지지하는 등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사건에 개입하는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²⁰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교사들이 전반적인 섹슈얼리티와 특별하게 성적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겪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에 관련된 이슈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과과정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토론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에서조차도, 교사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면 실제 수업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교육에서 성적다양성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상파울로 주에서는, 성적다양성이 포함된 성교육에 관한 포용적이고 전환적인 방식의 교사교육이 개발되

117 Groundspark. <http://groundspark.org/our-films-and-campaigns/elementary>

118 Inclou Gais i lesbianes en l'educacio. <http://www.arsmm.com/quaderns and Xega>.

119 Pride and Prejudice. <http://www.prideandprejudice.com.au/index2.htm>

120 GLSEN, (2010), *GLSEN Report: NYC Respect for All Trainings Increase Staff Competency at Addressing Anti-LGBT Bullying*. <http://www.glsen.org/cgi-bin/iowa/all/news/record/2587.html>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GO인 GALA는 동성애와 동성애혐오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2012년 6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에는 교사 교육 내용에 어떻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슈를 포함시킬지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나미비아의 레인보우프로젝트는 농촌지역의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인권에 초점을 두고 동성애에 관한 이슈 역시 인권의 틀 속에서 접근합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과 배제를 이해하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권 문제 등 인권 전반의 난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사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과과정으로 통합

학교 교과과정은 다양성 존중을 신장시킬 수도 있고, 동성애혐오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적다양성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낙인찍고 차별하는 내용이 교과과정이나 교수-학습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동성애가 민감한 이슈인 국가에서, 또는 나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낙인찍고 차별하는 내용은 교과과정에서 없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중을 담은 인권적 접근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학교환경이 건강해지면 결과적으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하여 괴롭힘이 일어날 확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과과정에는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강의 및 학습자료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에 대한 좋은 예를 포함시키는 포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¹²¹ 포용적이지 못한 교육과정은 비가시화와 소외의 원인이 됩니다.

영국의 경우, 자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존중 받는다고 느끼고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¹²² 또한 상호 존중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런 이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합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방지와 대응과 관련해서, 교육과정과 학습자료에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21 IGLYO, (2007), *Guidelines for LGBTIQ-inclusive education*, Brussels: IGLYO. http://www.iglyo.com/content/files/educational/IGLYO_Educational-Guidelines.pdf

122 Stonewall, (2007), *The School Report*.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4004.asp

- 현재의 교육과정과 학습자료가 성적다양성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기존의 젠더규범을 더욱 강화하지는 않는가?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관련된 이슈들이 교육과정 중 어디에서 다루어져야 할까?

가능한 접근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생활기술교육에 통합
- 성교육이나 보건교육에 통합
- 인권 교육이나, 시민성 교육 또는 국민윤리 교육에 통합하는 방법
-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사회 등 다양한 교과목에서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

이러한 이슈들이 교과과정에 어느 정도로, 어느 부분에서 다루어질지는 무엇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따라 달라지며, 국가간에도 상이할 것입니다.

성교육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OHCHR.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ovember 2011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¹²³에서는 포괄적인 교육과정이 되려면 정보, 가치, 태도 및 사회적 규범, 대인관계 및 인간관계 기술, 책임감을 포함하도록 권고합니다. 정보에는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치, 태도, 규범에는 관용, 존중, 인권, 평등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감에 대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상대방의 건강상태나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존중, 수용, 관용, 공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박스 16의 자료는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에서 발췌한 것으로, 학생의 연령별로 어떻게 성교육을 통하여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23 UNESCO, (2009),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for schools, teachers and health educators*, Paris: UNESCO.

박스 16: 관용과 존중

연령	학습 목표	핵심내용
5-8세	'존중'을 정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 수용, 존중의 가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 모든 사람은 특별하고 가치 있으며,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 모든 인간은 존중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해로운 행동이다.
9-12세	편견, 선입관, 낙인, 불관용, 폭력, 거부, 괴롭힘의 개념 정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피부색, 출신, 성적지향, 그 외에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이나 괴롭힘을 가하는 것은 무례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 다르다는 이유로 낙인을 찍고 차별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은 폭력 또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12-15세	낙인, 차별, 괴롭힘이 왜 해로운지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인과 차별은 해롭다. ■ 스스로 낙인을 자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침묵, 부정, 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모든 사람은 불관용과 편견에 맞서 발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같이 낙인과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원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케냐의 청소년연구센터에서는 러거스 WPF(Rutgers WPF) 및 교육부와 공동으로 케냐의 중고등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성적 다양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와 참여적 교수방식을 사용하여 혁신적이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성적 다양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성적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합니다. <박스 17>에서는 이 교육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박스 17: 동성간의 성적 끌림 또는 동성애

청소년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끌리거나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에게(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끌립니다.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이성애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동성에게(남성은 남성에게, 여성은 여성에게) 끌립니다. 이렇듯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동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갖거나, 상상하고, 꿈을 꾸고, 매력을 느낍니다. 친한 친구 둘이(두 소년이나 두 소녀가) 서로에게 반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이 있고 싶고 때때로 서로에게 육체적으로 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성에게만 끌립니다. 비록 일부 종교와 문화에서는 동성애를 나쁘거나 비정상적이라 여기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간의 성적지향과 감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피부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나 의지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과 성관계를 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변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이질적인 존재이고 외톨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야기를 나눌 사람, 가령 청소년상담사, 의사, 믿을 수 있는 교사, 가족 중 연장자나,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해주고 걱정을 덜도록 도와줄 사람을 찾아 보도록 하세요.

출처: You, Your Life, Your Dreams: A Book for Adolescents, Family Care International, 2000

성교육을 통해 이런 논의를 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권교육을 이용하여 평등, 존중, 차별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학대와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맥락 속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다룰 수 있습니다.^{124,125} 일부 국가에서는 존중과 다원주의라는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민교육과정을 개혁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 이후, NGO인 호센(Hoshen)이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고정관념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호센과 다른 NGO들이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교과과정에 통합시킨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스톤웰에서는 중등학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에는 우정, 커밍아웃, 성장의 문제를 다룬 청소년용 영화와 함께 교사를 위한 소책자와 토론용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주제로 하는 이야기나 몇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이슈에 대한 토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중등교사용 수업자료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지침(Education

124 OSCE et al., (2009), *Curriculum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Poland: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http://www.hrea.org/pubs/Compendium.pdf>

125 Warwick I, Douglas, (2001), *Safe for all, a best practice guide to prevent homophobic bullying in secondary schools*. Education Policy Research Unit,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Equality Curriculum Guide)¹²⁶에서는 전체모임이나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종교, 음악, 미술, 연극 같은 과목별 수업에서 성적지향과 동성애혐오를 다루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 문학수업을 이용하여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묘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토론을 활성화시키거나, 또 미술시간을 이용하여 가령 괴롭힘방지 포스터를 만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한 활동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과연 몇 살 때부터 학교에서 성적 다양성과 성별 정체성,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며, 어린 아이들과의 활동에서 가장 좋은 접근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쉽고 연령에 맞는 접근법을 통해 여러 주제들, 예컨대 비하적 언어사용, 친절함의 행동과 상처주는 행동의 비교, 존중, 젠더 고정관념,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어린 학생, 성적 함의가 인정되는 법정연령에 이르지 않은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 성적 다양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혹은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과 태도는 어린 시기에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진행된 스톤월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초등학교에서 겨우 10살밖에 안된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교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스톤월에서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성과 젠더의 다양성, 평등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괴롭힘에 대한 ‘안전메시지(safe messages)’를 확대하고, 교사용 수업용구 등 종합적인 자료집을 지방교육청을 통해 배포합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개발하면서 얻은 교훈은, 교장 개인의 지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과, 학부모의 참여와 부모와 자녀를 아우르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등입니다.

독일 베를린 시의 경우 시립 초등학교에서 차이, 관용, 수용에 초점을 둔 성적 다양성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¹²⁷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교재를 그림책, 게임, 매뉴얼 등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NGO 호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 프로젝트는 학교 행정직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통적이지 않은 가족형태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과정을 개설해서 성별정체성과 언어표현, 성적지향에 관한 기

¹²⁶ Cara Friend and The Rainbow Project, (2011), *The Education Equality Curriculum Guide Supporting teachers in tackling homophobia in school*, Northern Ireland: Cara Friend and The Rainbow Project.

¹²⁷ Portail Gay, (2011), *A Berlin, la lutte contre l'homophobie commence à l'école primaire*. <http://www.portailgay.eu/spip.php?article7083>

본적인 개념을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이와 함께 어린 아이들의 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젠더 고정관념을 깨는데 활용될 수 있는 책과 활동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치원 교사들이 비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자란 아이들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3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괴롭힘을 당한 학생
-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목격한 학생
- 괴롭힘의 가해학생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반복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사, 부모, 또래집단의 지지와 더불어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가해학생에게는 벌칙을 집행하는 것과 더불어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이 사회성을 기르도록 돕고, 협동적인 학습에 참여시키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힘을 행사할 기회를 주고, 또래집단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는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담과 지원을 할 자원이나 훈련된 인력이 없는 학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을 찾아보고 위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괴롭힘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목격자가 됩니다. 이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개입하고 사건을 신고하도록 교육과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괴롭힘이 멈추도록 서로 도와주는 행동이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며, 이런 학생들이 보복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목격자는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괴롭힘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을 경우 보통 괴롭힘을 용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목격자가 가해자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여, 예를 들어 ‘캐나다 안전학교 네트워크(Canadian Safe Schools Network)’¹²⁸에서는 학생들에게 옆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목격자를 위한 다른 조언은 박스18 참고)

128 Canadian Safe School Network, (2008), *Kids Who Witness Bullying*. <http://www.canadiansafeschools.com/students/standbybystander.htm>

박스 18: 도움되는 목격자가 되는 요령

- 당신이 개입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위해 맞서세요.
- 괴롭힘에 동조하지 마세요.
-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돕자고 하세요.
- 성인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 괴롭힘을 당한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 괴롭힘을 당한 친구를 챙겨주고 같이 어울리세요.

출처: Eyes on Bullying. www.eyesonbullying.org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예방과 개입을 위해 목격자들이 참여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해 본 경험은 많지 않지만, 일반적인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¹²⁹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학생들이 ‘해로운 목격자(hurtful bystanders)’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도움되는 목격자(helpful bystanders)’가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로운 목격자는 괴롭힘을 부추기고 조장하거나, 괴롭힘이 시작되면 같이 괴롭히거나, 지켜보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수동적으로 괴롭힘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는 일종의 관중이 되어 가해자를 부추깁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괴롭힘이 관심거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것이 가해학생에게 힘과 지위를 부여합니다. 반대로, 도움되는 목격자는 가해자를 말리거나,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상황을 전환시켜서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목격자는 괴롭힘에 맞서기 위해 또래 친구들의 지원을 결집시키거나 성인에게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 도움을 구합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개입할 용기가 없거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개입하는 경우 그 효과가 어른이 개입하는 경우보다 크고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목격자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돕게 되는지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언제 끼어드는 것이 안전하고 언제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또 괴롭힘을 멈추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그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가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129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www.edc.org for more information on effective ways to prevent bullying including the Eyes on Bullying programme, Aggressors, Victims and Bystanders curriculum, Voices Against Violence campaign 참조.

학교와 교사로부터의 지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지역이나 가용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육기관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인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사
- 학교 상담사 또는 간호사
- 학교 사회복지사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은 학교 상담사나 간호사, 또는 학교 외부의 의료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피해학생들이 신체와 정신건강문제를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교사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자신 없어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본인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교사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의료적 사안이 아닌 교육적 사안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이 다시 한 번 강조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교사가 자살예방 전문가에게 학생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응이 가능하려면 교사들이 경고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숙련된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들이 교사의 괴롭힘 예방과 대처 활동을 지원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사와 사회복지사의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남아프리카 사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반야의 경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왜 남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남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6학년 때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갔고 제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말을 더듬는다고 또 게이라고 놀림을 받았죠. 하지만 게이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고, 7학년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때 처음으로 스스로 거세하려 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초등학교 때와 완전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등교 첫날부터, 누구라도 나를 괴롭히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었고 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울면서 내가 비밀을 털어놓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정신과 의사와 연결시켜주었고, 그 정신과 의사는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진단해 주었어요. 교장선생님과 엄마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어요.”

반야(Vanya)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교 상담사 역시 성적 다양성이나 성별정체성 문제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자신이 없거나, 성이나 젠더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장 잘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를 수 있습니다.¹³⁰ 네덜란드에서는 에듀다이버스(EduDivers)라는 단체가 ‘전국 학교 상담사를 위한 도구(National Toolkit for School Counsellors)’¹³¹ 속에 한 개의 장(chapter)으로 게이와 레즈비언 학생 상담에 대한 내용을 개발하여 넣고 학교 상담사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래의 지지

학생들 스스로가 나서서 또래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의 학교에서는 또래중재와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괴롭힘을 신고하고 갈등해결전략을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박스19 참고)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주도하여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으며,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일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십여 년 전 매사추세츠 주의 후원으로 ‘안전 학교 프로그램(Safe Schools Programme)’이 생긴 이래,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가 조직되었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¹³² 미국 질병통계센터의 기금으로 진행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기관 20곳이 참가한 ‘안전하고 건강한 성소수자 청소년 프로젝트(The Safe and Healthy LGBT Youth Project)’에서는,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를 통해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 네트워크(GSA Network)’에서는 학교를 모든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학생, 부모, 교사, 학교운영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활동으로, ‘더

130 Kersten A and Sandfort T, (1994), *Lesbische en homoseksuele adolescenten in de schoolsituatie*, Utrecht: Interfacultaire Werkgroep Homostudies. <http://www.edudivers.nl/doc/onderzoek/Kersten%20%27Homolesbische%20adolescenten%20in%20de%20schoolsituatie%27%201994.pdf>

131 Dankmeijer P, (2006), *Homo-en transseksuele aandachtspunten in de leerlingenbegeleiding*, Leerlingenbegeleiding: Kluwer.

132 GSA Network. <http://www.gsanetwork.org/>

좋게 만들기 프로젝트(Make it Better Project)’를 출범시켰습니다. 비디오 증언, 여러 도구와 미디어를 이용하여 학교들의 참여를 끌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인식을 갖도록 도왔고, 2010년 12월에는 동성애혐오 반대의 표시로 교사와 학생들이 보라색을 착용하는 ‘보라색 금요일(Purple Friday)’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얼마나 호응을 얻었던지 심지어 국무총리까지도 그날 있었던 그 주의 정기 기자회견 때 보라색 넥타이를 하고 동성애혐오에 반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박스 19: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 만들기

이갈 캐나다(Egale Canada)에서는 학생들이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를 조직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방법을 10단계로 만들었습니다:

- 학교 환경을 평가합니다
- 학교와 학교위원회의 모든 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지도교사를 찾습니다
- 학교운영진에 이야기합니다
- 생활지도 상담사, 사회복지사와 다른 도움이 될 만한 교직원에게 알립니다
- 모임 장소를 찾습니다
-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 동아리를 홍보합니다
-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활동을 실행합니다

출처: New Equity in Education Resource Kit. More detail can be found at <http://mygsa.ca/en/GSAGuide>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결석할 가능성이 적고, 소속감이 강하고, 괴롭힘을 적게 겪는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 위협, 상해를 당하거나 학교가기 무서워 결석하는 일이 훨씬 적었습니다.^{133, 134, 135, 136}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의 효과는 정책적 요구가 있고, 학교 전체 차원으로 접근하고, 학교운영진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을 때 더욱 커집니다.

133 Goodenow C *et al.* (2006), School support groups, other school factors, and the safety of sexual minority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3(5), 573-589; O’Shaughnessy, M., Russell, S.T., Heck, K., Calhoun, C., & Laub, C. (2004), *Safe Place to Learn: Consequences of Harassment Based on Actu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Non-Conformity and Steps for Making Schools Safer*, San Francisco, CA: California Safe Schools Coalition.

134 See also: Lee C, The impact of belonging to a high school Gay Straight Alliance, *High School Journal*, 2002: 85(3) 13; Russell S *et al.*, Youth empowerment and high school Gay Straight Alliance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009: 38(7) 891-903.

135 Szalacha L, (2003), Safer sexual diversity climates: Lessons learned from an evaluation of Massachusetts safe schools program for gay and lesbian learner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10(1) 58-88.

136 Kosciw J and Diaz E, (2006), *2005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GLSEN.

4.4 협력과 연대

교육기관내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없애는데 성공하려면 전략적인 협력과 연대를 맺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는 문제와 이것이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 교사들이 동료, 교장, 교육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근절활동에 학교공동체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근절활동에 더 넓은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 학교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대응 노력이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 호응을 얻습니다
- 교육부문 외부의 전문가와 경험들을 끌어 옵니다

앞으로 소개될 내용들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교육부문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연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교육기관에서의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네트워크(Collectif éducation contre les LGBTphobies en milieu scolaire)’는 프랑스의 교육부문 이해관계자 대부분을 대변하는 9개의 전국적인 노동조합과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요 교육관계자 노동조합들,¹³⁷ 주요 전국학부모협회 두 곳 중 하나³⁸, 전국적으로 가장 큰 대학생 조합(UNEF), 두 개의 중고등학생 조합¹³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 네트워크가 설립되었을 당시만 해도 교육부문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우리 단체들 속에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의 설명처럼, 몇몇 헌신적인 개인들이 각자의 단체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단체들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처음 교육부와의 면담을 요청했던 2005년에는 교육부에서 보건과 장애를 담당하는 고문을 만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동성애혐오에 대한 당국의 협소한 이해수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네트워크의 단체들과 교육부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일은 더딘 과정이었습니다. 네트워크는 2009년에서야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한 활동 중에는, 동

137 Fep-CFDT, Ferc-CGT, FSU, Sgen-CFDT, UNSA Education.

138 FCPE.

139 FIDL과 UNL.

성애혐오성 괴롭힘과 동성애혐오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의 9개 단체를 통해 교육관계자, 부모,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 단체 회원들의 인식을 높이는 워크숍을 진행한 것, 교육부와 옴부스맨 등 프랑스 정부기관에 대해 자문역할을 한 것,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NGO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활동한 것 등이 있습니다. 2010년 교육부에서는 동성에게 끌리거나 젠더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전화를 홍보하기 위해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네트워크에서 이 캠페인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는 몇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사람들이 학교에서의 동성애혐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언론에서도 자주 네트워크에 취재 요청을 합니다... 2008년과 2009년에 모든 교육기관에 발송된 행정지침 속에는 동성애혐오 대처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루어진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캠페인 평가를 살펴보면, 소수의 학교만이 그것도 양호실에만 포스터와 홍보물을 비치했습니다...”

학부모, 지역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 학부모-교사 연합, 시민사회단체, 교사노동조합, 언론은 모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아래의 예에서 보여줍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이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반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처하고자 할 때도 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부와 학교가 이런 사안을 다루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치들이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으로 비추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이나 다른 아이들이 괴롭힘 당하길 바라지 않고 [...] 마찬가지로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히기를 바라지 않지”¹⁴⁰ 때문에, 학교 내 괴롭힘을 없애는 것은 모든 학부모의 관심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지원이 교육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정도나 영향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동성애혐오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학부모의 90%가 찬성했고 성적지향 이슈를 포함시키는 데는 학부모의 82%가 찬성했습니다.¹⁴¹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한 도움과, 학교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야의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로서 다양한 젠더와 성적지향에 대해 꼭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¹⁴⁰ GLEN, (2001), *Lesbian, gay and bisexual students in post-primary schools, guidance for principals and school leaders*, New York: GLEN.

¹⁴¹ McCormack, Orla and Gleeson Jim, (2010), 'Attitudes of parents of young men towards the inclusion of sexual orientation and homophobia on the Irish post-primary curriculum', *Gender and Education*, Vol 22, 1.4: 385-400.

의 사람들이 아는 것은 기껏해야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가 있다는 것뿐이니까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어머니들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당신의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세요.”¹⁴²

학부모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모에게 찾아가고 교육하는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불법이거나 민감한 이슈인 등 상황이 열악한 곳에서는 강조점을 안전한 학습 환경에 대한 권리와 어떤 형태의 차별도 거부할 필요성에 두어야 합니다. 그 동안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스스로가 주도하거나 NGO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 멕시코에서는 부모와 가족, 친구를 위한 지지집단으로 출발한 FUNSEVIDA라는 NGO에서 ‘동성애혐오와 HIV: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Homophobia and HIV: Mothers and Fathers Speak)’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부모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UNSEVIDA에서는 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하여 베라크루스 주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할라파 시의 6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등학교의 교사, 학교관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50 회 이상의 워크숍이 이루어 졌고, 앞으로 더 많은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베트남에 있는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부모와 친구들(Parent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이라는 웹사이트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부모와 친구들을 위해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고 이들이 그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성애자 아들을 둔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좀더 관대하게 마음을 열어 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을 때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공감을 돕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더 쓸모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조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학교가 모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에 대해서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활동에 이런 학부모가 또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미국에서는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환영하는 학교(Welcoming Schools)’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환경에서 잘 대변되지 못하고 포용되지 못하는 가족형태를 가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내에서 가족 다양성, 성 고정관념, 괴롭힘, 인신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직원, 학부모, 보호자에게 강좌, 자료,

¹⁴² Morgan R, Wellbeloved J, and Marais C. (editors), (2009), *Trans: Transgender Life Stories from South Africa*, Johannesburg: Jacana.

기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환영받고 존중받는 학습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꽃은 ‘환영하는 학교 가이드(Welcoming Schools Guide)’로, 포용적인 학교환경과 학습성취도와 정서적 안정감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한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 주의 교육구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평가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폭넓게 배포될 예정입니다.¹⁴³

- 캐나다의 퀘벡 주정부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가족을 향한 불관용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개발하도록 성소수자가족연합(Coalition des Familles Homoparentales)에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학부모 및 교사를 위한 지침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700개 교육기관의 교육자 3,5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종교지도자들도 학교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스톤월은 주요한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중에는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폭력은 최악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한 캔터베리 대주교[역자주: 영국 국교회의 수장]도 있습니다.¹⁴⁴

프랑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에서는 게이 학생이 교육청(Direction)의 후원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교구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이 학교의 교감은 학교설립자들의 목적이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고 이 약속을 매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Le Monde Magazine, June 11, 2011. Contre l'homophobie, un lycée catholique mobilisé.

시민사회

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연구, 옹호, 의식고취, 정책활동을 통해 교육기관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교육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의식고취, 정책, 지침서, 교사교육 개발, 학생지원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 미국의 교육단체인 GLSEN은 지역단위, 주단위, 전국단위에 있는 연합체 및 선출 공직자들과 협력해서, 실제 혹은 외견상 보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등 특정한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법과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143 Welcoming Schools. *The Welcoming Schools Guide*. <http://www.welcomingschools.org/about/>

144 Stonewall. *Stonewall education guide: Oh no! Not the gay thing!, leaflet on religious education*.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the_campaign/default.asp

- ‘태평양 성적 다양성 네트워크(Pacific Sexual Diversity Network)’는 피지, 사모아, 통가의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기관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대처전략들을 개발하고, 교사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일랜드 BeLonG To라는 NGO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교사 교장 노동조합, 전국부모연합, 대통령비서실,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와 협력하였습니다. BeLonG To는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와 협력해서 동성애혐오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 평등권 네트워크(Gay and Lesbian Equality Network)’와 교육부와 함께,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성교육 및 인간관계교육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3,500명의 교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시작한 ‘학교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근절 캠페인(Stop Homophobic Bullying in School campaign)’은 평등위원회와 공동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아일랜드 대통령의 지지도 확보 했습니다. 교육부의 중앙정책단(Central Policy Unit)과의 협력관계를 맺은 것이 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GALA와 OUT LGBT Wellbeing은 가우텡주 교육청 공무원과 생활의 기초(Life Orientation) 교과목 담당교사의 관리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중고등학교 네 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의 맥락에서 성적 다양성을 알아보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베트남의 ‘성적권리를 위한 선구자들(Pioneer for Sexual Rights Alliance (P4SR))’은 2011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P4SR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 내 동성애 혐오와 학교 내 폭력예방 및 안전정책 현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증거를 축적하는 활동, 중고등교육과 대학교육과정의 학생을 위하여 성적 다양성을 포함한 성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활동,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워크숍을 조직하는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전시회, 행위예술, 박물관 전시, 대중행사를 통해 교사와 일반 대중의 의식을 높이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 ‘LGBT 스코틀랜드’에서는 학교 내 동성애혐오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와 NGO들이 협력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한 지침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동성애혐오에 함께 도전하기(Challenging Homophobia Together)’라는 프로젝트를 스코틀랜드에서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교 내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학생을 위한 워크숍과 토론식 수업 제공, 교사를 위한 교육과 지침도구 제공, 현행법과 우수 사례에 부합하는 학교정책개발 지원, 정보나 조언이 필요한 학생 지원 활동을 합니다.
- 이스라엘의 교육부는 호센이라는 NGO와 협력하여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처하는 활동을 개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들이 호센의 자원봉사자를 초대하여 그들의 경험을 교사, 학생, 학교상담사와 나누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대학과 학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곳에서는 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함께 하는 또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NGO단체인 GALE의 추산에 따르면, 유럽에서 매년 150개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또래교육집단을 통해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40여만명의 학생과 청년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 또래 강사를 활용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고정관념을 깨고 솔직하고 열린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시행된 것들이므로, 정책과 실무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 중국의 ‘Aibai 문화 교육 센터(Aibai Culture and Education Centre)’라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단체는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 사이의 동성애혐오를 없애고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Aibai는 학생 단체들과 공동으로 간담회와 영상 상영을 조직합니다. 이 활동은 대학 직직자의 지원을 받아 2005년 베이징산림대학(Beijing Forestry University)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30개가 넘는 대학에서 Aibai에게 비슷한 활동을 조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성공에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체, 베이징을 기반으로 하는 ‘같은 언어(Common Language)’라는 지지와 권리옹호 단체는, 대학 캠퍼스에서 교육활동, 차별금지활동, 괴롭힘금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고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를 설립하여 청소년 학생들이 괴롭힘금지 캠페인의 중요한 활동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 터키의 카오스 GL(Kaos GL)이라는 NGO는 대학의 초청을 받아 동성애혐오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수업도 진행합니다. 2011년에는 17개시의 대학 캠퍼스 19곳을 찾아가했습니다. 카오스 GL은 터키에서 가장 큰 교사노동조합과 학교자문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칠레의 MUMS라는 NGO는 산티아고의 여러 학교에서 지방자치 당국의 지원 아래 괴롭힘과 학교폭력 대처 워크숍을 성적 다양성이라는 틀에서 진행하였습니다.¹⁴⁵
- 독일의 ABQueer라는 연합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학생과의 학교거점 개입과 교사교육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개입으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또래집단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GALE는 네덜란드 및 여러 국가의 학교에서 다양성과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루, 콜롬비아, 칠레에서 지역협력단체를 지원하여 학교 내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5 MUMS (Chile). www.mums.cl.

언론매체 활용하기

어떤 국가에서는 학교 내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NGO인 BeLonG To는 '일어나라! 캠페인(Stand Up! Campaign)'¹⁴⁶에서 영상발언과 드라마를 이용하여 이성애자 학생과 교직원들이 동성애혐오에 맞서 일어나도록 독려했고, 9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성적 다양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사회, 경제, 환경 연구소(Institute for Studies of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는 캠페인 대표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언론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성적 소수자에 관한 기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질 거야(It Gets Better)'¹⁴⁷는 게이이거나 게이라고 보아서 괴롭힘을 당한 십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여 2010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주에 200개의 비디오가 업로드 되고, 그 다음주에는 유튜브 채널의 최대한도에 해당하는 650개의 비디오가 업로드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유명인사들을 포함해서 성적지향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22,000건 이상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이 프로젝트의 에세이집이 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하기

스페인에서는 교육노동조합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및 관련 사안에 대해 교육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폴란드의 '동성애혐오에 맞서는 캠페인(Campaign Against Homophobia)'은 폴란드 교사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조해서 함께 보고서를 내고 다양한 캠페인 이벤트에서 발언하여 왔으며, 교육훈련과정을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46 BeLonGTo. *Stand Up! Lets support out LGBT friends (video)*. www.belongto.org

147 It Gets Better Project. <http://www.itgetsbetter.org/>



5. 맺음말

서문에서 교육 사무차장보(the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Education)가 말한 바와 같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권리의 침해이자,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역량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좋은 정책들과 사례들은 안전한 교육을 위하여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여 교사, 행정가, 정책입안자, 다른 교육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동성애가 민감한 이슈이거나 불법인 국가에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에서 폭력과 괴롭힘에 대응하는 정책과 개입과 같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해결하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진인점들도 존재합니다.

여기 제시된 사례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나온 것으로,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를 통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해결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차장보의 요청을 반복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활용하고, 동료와 파트너와 공유하고,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멈출 수 있지만, 우리가 대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책의 제안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Alexander M and Santo J. 2011. Effects of homophobic versus non-homophobic victimisation on school commit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attitudes in Brazilian public schools. *Journal of LGBT Youth*, 8: 289-308.
- Australian Research Centre in Sex, Health and Society. *How to support sexual diversity in schools: A checklist*. Melbourne: La Trobe University. <http://www.latrobe.edu.au/arcshs/downloads/arcshs-research-publications/SexualDiversityChecklist.pdf>
- *Babu Pant and others v Government of Nepal and others*. 2007. Nepal Supreme Court.
- Behind the Mask. 2010. <http://www.mask.org.za/homophobia-at-schools>
- BeLonG To & OMCYA. 2010. *Addressing Homophobia: Guideline for the Youth Sector*. http://www.dcy.gov.ie/documents/publications/Addressing_Homophobia_270710.pdf
- Béres-Deák R and Rédei D. 2011. *Images of Hungarian teenagers about homosexuals – experiences of a school project*. <http://www.sociologija.si/wp-content/uploads/2011/04/Abstrakti.pdf>
- Bondyopadhyay A, Khan S, Mulji K. 2005. *From the front line: A report of a study into the impact of social, legal and judicial impediments to sexual health promotion, care and support for males who have sex with males in Bangladesh and India*. Naz Foundation International.
- Caceres C et al. 2009. *Review of legal frameworks and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related to sexual diversity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Geneva: UNAIDS.
- Caceres C et al. 2011. *Final report: Estudio a través de Internet sobre “Bullying”, y sus manifestaciones homofóbicas en escuelas de Chile, Guatemala, México y Perú, y su impacto en la salud de jóvenes varones entre 18 y 24 años*.
- Canadian Safe School Network. 2008. Kids Who Witness Bullying. <http://www.canadiansafe-schools.com/students/stand/bystander.htm>
- Cara Friend and The Rainbow Project. 2011. *The Education Equality Curriculum Guide Supporting teachers in tackling homophobia in school*. Northern Ireland: Cara Friend and The Rainbow Project.
- Carolan, F. and Redmond, S. 2003. The needs of young people in Northern Ireland who identify as lesbian, gay, bisexual and/or transgender (LGBT). Belfast: Youthnet.
- Clements-Nolle K et al. 2009. Attempted suicide among transgender persons: The influence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victimisation. *Journal of Homosexuality*. 51(3): 53-69.

- Cohen, J., McCabe, E.M, Michelli, N.M & Pickeral, T. 2009. School Climate : Research, Policy, Teacher education and Practice. *Teachers College Record*. 111(1) 180-213.
- Council of Europe. 2011. *Report on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Europe*, 2nd edn. Paris: Council of Europe.
- Currie C *et al.* (eds). 2008. Inequalities in young people's health: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5/2006 survey.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 Dankmeijer, P. 2001. *Gerapporteerde onveiligheid door homojongeren vergeleken met heterojongeren*. Amsterdam: Empowerment Lifestyle Services.
- Dankmeijer, P. 2006. *Homo-en transseksuele aandachtspunten in de leerlingenbegeleiding*. Leerlingenbegeleiding: Kluwer. http://www.edudivers.nl/doc/peters_publicaties/Dankmeijer%20%27Gerapporteerde%20onveiligheid%20door%20homojongeren%20vergeleken%20met%20heterojongeren%27%20%282001%29.pdf
- Dankmeijer, P (editor). 2011. *GALE Toolkit Working with Schools 1.0. Tools for school consultants, principals, teachers, learners and parents to integrate adequate attention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topics in curricula and school policies*. Amsterdam: GALE The Global Alliance for LGBT Education.
- Dannel B and Paterson E. 2011. *Challenging homophobia together, research report and a guide to developing strategic partnerships in education*. Scotland: LGBTI Youth Scotland.
- Dubel and Hielkema (eds). 2010. *Gay and lesbian rights are human rights*. The Hague: HIVOS
-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www.edc.org
- Education International. 2009. Schools Shall be Safe Sanctuaries: A Declaration by Education International. http://download.ei-ie.org/Docs/WebDepot/2009_leaflet_Schools-As-Safe-Sanctuaries_en.pdf
- Fridae. 2010. <http://www.fridae.asia/newsfeatures/2010/08/13/10223.hong-kong-ngo-fights-homophobia-in-schools>
- Galan *et al.* 2009. Achieving real equality: A work in progress for LGBT youth in Spain. *Journal of LGBT Youth*. 6(2) p272-287.
- Gay and Lesbian Network. 2011. *Homophobia in schools in Pietermaritzburg*. Pietermaritzburg: Gay and Lesbian Network.
- Gay JapanNews, Global Rights *et al.* 2008. *The violations of the right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rsons in Japan. A Shadow Report Submitted to the Human Rights*

- Committee. <http://www.iglhrc.org/binary-data/ATTACHMENT/file/000/000/159-1.pdf>
- Geiger B, Fischer M. 2006. Will Words Ever Harm Me? Escalation from Verbal to Physical Abuse in Sixthgrade Classroo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3): 337-57.
 - GLE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2001. *Lesbian, gay and bisexual students in post-primary schools, guidance for principals and school leaders*. Ireland: GLEN.
 - GLSEN. 2009.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 GLSEN.
 - GLSEN. 2010. GLSEN Report: NYC Respect for All Trainings Increase Staff Competency at Addressing Anti-LGBT Bullying. <http://www.glsen.org/cgi-bin/iowa/all/news/record/2587.html>
 - GLSEN. 2012. *Ready, Set, Respect: Elementary School Toolkit*. New York: GLSEN.
 - GLSEN and Harris Interactive. 2012. *Playgrounds and Prejudice: Elementary School Climate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of Students and Teachers*. New York: GLSEN.
 - Goodenow C et al. 2006. School support groups, other school factors, and the safety of sexual minority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3(5), 573-589.
 - Government of Ireland, 1995. *Charting Our Education Future*. Dublin: Government Publications.
 - Green M. 2006. Bullying in Schools: A Plea for a Measure of Human Rights. *Journal of Social Issues*, 62(1): 63-79.
 - Greytak E et al. 2009. *Harsh realities: The experiences of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GLSEN.
 - Groundspark. <http://groundspark.org/our-films-and-campaigns/elementary>
 - Harris Interactive and GLSEN. 2005. *From teasing to torment: School climate in America, a survey of teachers and learners*. New York: GLSEN.
 - Helem. <http://www.helem.net/>
 - Hendrickson M, 2007. You have to be strong to be gay: Bullying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LGB New Zealanders. *Journal of Gay and Lesbian Social Services*. 19 (3/4), 67-85.
 - Hillier A, Turner A, Mitchell A. 2005. *Writing themselves in again: 6 years on. The 2nd national report on the sexual health & well-being of same sex attracted young people in Australia*. Melbourne: Australian Research Centre in Sex, Health and Society (ARCSHS), La Trobe University.

- Hillier *et al.* 2010. *Writing themselves in 3. The third national study on the sexual health and well-being of same sex attracted and gender questioning young people.* Melbourne: Australian Research Centre in Sex, Health and Society (ARCSHS), La Trobe University.
- House Bill 1483: *An Act Defin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and Providing Penalties Therefore* (Philippines).
- Hunt, R. and Jensen, J. 2007. *The experiences of young gay people in Britain's schools.* The School Report. UK: Stonewall.
- Inclou Gais i lesbianes en l'educacio. <http://www.arsmm.com/quaderns> and Xega. <http://xega.org/xega/>
- IGLYO. 2007. *Guidelines for LGBTIQ-inclusive education.* Brussels: IGLYO. http://www.iglyo.com/content/files/educational/IGLYO_Educational-Guidelines.pdf
-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2009.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http://nces.ed.gov/programs/crimeindicators/crimeindicators2009/ind_11.asp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2007. *Yogyakarta Principles -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ttp://www.yogyakartaprinciples.org/principles_en.pdf
- Jennett M. 2004. *Stand up for us, challenging homophobia in schools.* UK: Department of Health.
- Jolly S. 2010. *Poverty and sexuality: What are the connections? Overview and literature review.* Stockholm: SIDA.
- Jones, N, Moore, K, Villar-Marquez, E, Broadbent, E. 2008. *Painful lessons: the politics of preventing sexual violence and bullying at school.* Woking/Londres, Plan/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Working Paper 295).
- Jones, T. 2011. *Sexual subjects: GLBTIQ student subjectivities in Australian Education Policy.* Unpublished thesis, La Trobe University.
- Juvonen, J. Gross, EF. 2008. Extending the school grounds? - Bullying experiences in cyberspace. *J Sch Health.* 78(9): 496-505.
- Kersten, A and Sandfort, T. 1994. *Lesbische en homoseksuele adolescenten in de schoolsituatie.* Utrecht: Interfacultaire Werkgroep Homostudies. <http://www.edudivers.nl/doc/onderzoek/Kersten%20%27Homolesbische%20adolescenten%20in%20de%20schoolsituatie%27%201994.pdf>
- Kessel, Schneider *et al.* 2012. Cyberbullying, School Bully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 Regional Census of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1) 171-177.
- Keuzenkamp, S. 2010. *Steeds gewoner, nooit gewoon. Acceptatie van homoseksualiteit in Nederland*. Den Haag: Sociaal en Cultureel Planbureau.
- Kim, YS. 2008. Bullying and suicide: A Review. *Int J Adolesc Med Health*. 20(2) 133-154.
- Kimmel, M., Aronson, A., 2003. Men and Masculinities; A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Encyclopedia. California: ABC-CLIO.
- Kosciw J and Diaz E. 2006. *2005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GLSEN.
- Kosciw JG, Greytak EA, and Diaz EM., 2009. Who, What, Where, When, and Why: Demographic and Ecological Factors Contributing to Hostile School Climate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8(7), 976-988.
- Le Monde Magazine, June 11 2011. Contre l'homophobie, un lycée catholique mobilisé.
- Lee, C. 2002. The impact of belonging to a high school Gay Straight Alliance. *High School Journal*. 85(3) 13.
- Leung T.C. *William Roy v. Secretary of Justice* (2006) 4 HKLRD 211, Hong Kong, SAR, China, Court of Appeals.
- LGBT Youth Scotland. 2011. *Challenging homophobia together, research report and a guide to developing strategic partnerships in education*. Scotland: LGBT Youth.
- Mayberry, M. 2006. School reform efforts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students, *The Clearing House*, 79(6), 262-264.
- Mayock, P et al. 2009. *Supporting LGBT lives: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reland: BeLonG To & GLEN.
- McCormack, Orla and Gleeson, Jim. 2010. Attitudes of parents of young men towards the inclusion of sexual orientation and homophobia on the Irish post-primary curriculum. *Gender and Education*, Vol 22, I.4:385-400.
- McFarland, W. 2001. The legal duty to protect gay and lesbian learners from violence in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3) 171-180.
- Minton et al. 2008. An exploratory survey of the experiences of homophobic bullying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young people in Ireland. *Irish Educational Studies*. 27(2) 177-191.

- Mishna, F, Saini, M, and Solomon, S. 2009. Ongoing and online: children and youth's perceptions of cyber bullying. *Child Youth Serv Rev.* 31(12) 1222-1228.
- Morgan, R., Wellbeloved, J., and Marais C. (editors), 2009. *Trans: Transgender Life Stories from South Africa*. Johannesburg: Jacana.
- New Zealand AIDS Foundation, Out There, Rainbow Youth. 2004. *Safety in our Schools, an action kit for Aotearoa New Zealand schools to address sexual orientation prejudice*. Wellington: OutThere
- Norman, J. 2004. *A survey of teachers on homophobic bullying in Irish second-level schools*. Dublin: School of Education Studies, Dublin City University.
- Ofsted (2012), The Framework for School Inspection. <http://www.ofsted.gov.uk/resources/framework-for-school-inspection-january-2012>
- OHCHR. 2011.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9session/a.hrc.19.41_english.pdf
- O'Higgins-Norman, J. 2008. Equality in the provision of social, personal and health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Ireland: The case of homophobic bullying? *Pastoral Care in Education*. 26(2):69–81.
- O'Higgins-Norman, J. 2009. Straight talking: Explorations on homosexuality and homophobia in secondary schools in Ireland. *Sex Education: Sexuality, Society and Learning*. 9(4):381–393.
- O'Loan, S., McMillan, F., Motherwell, S., Bell, A., and Arshad, R., 2006. *Promoting equal Opportunities in Education: Project Two, Guidance in Dealing with Homophobic Incidents*. Edinburgh: Scottish Executive Education Department.
- OSCE *et al.* 2009. *Curriculum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Poland: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http://www.hrea.org/pubs/Compendium.pdf>
- O'Shaughnessy, M., Russell, S.T., Heck, K., Calhoun, C., & Laub, C. 2004. *Safe Place to Learn: Consequences of Harassment Based on Actu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Non-Conformity and Steps for Making Schools Safer*. San Francisco, CA: California Safe Schools Coalition.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 Child Psychol Psychiatry*. 35(7) 1171-90.

- Pinheiro, PS, (2006),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http://www.unicef.org/violences-tudy/reports.html>
- Pizmony-Levy *et al.* 2008. Do my teachers care I'm gay? Israeli lesbian school learners' experiences at their schools. *Journal of LGBT Youth*. 5(2) 33-61.
- Portail Gay. 2011. A Berlin, la lutte contre l'homophobie commence à l'école primaire. <http://www.portailgay.eu/spip.php?article7083>
- Pride and Prejudice. <http://www.prideandprejudice.com.au/index2.htm>
- Public Safety Canada, Bullying Prevention in Schools. <http://www.publicsafety.gc.ca/res/cp/res/bully-eng.aspx>
- Rebeyrol, A *et al.* 2010. *2008 Rapport sur la prévention des discriminations à raison de l'orientation sexuelle en milieu scolaire*. Paris: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 Russell S *et al.* 2009. Youth empowerment and high school Gay Straight Alliance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8(7) 891-903.
- Russell, S, J. Kosciw, S. Horn and E. Saewyc, 2010. Safe Schools Policy for LGBTQ Students. Social Policy report; 24 (4):1-24.
- Russell, S, McGuire, J, Laub, C, and Manke, E. 2006. *LGBT student safety: Steps schools can take, (California Safe Schools Coalition Research Brief No.3)*. San Francisco: California Safe Schools Coalition.
- Salmon G, James A, Smith DM. 1996. Bullying in schools: self reported anxiety, depression, and self esteem in secondary school children. *BMJ*. 317(7163) 924-5.
- Smith, P. *et al.* (Eds). 2004. *Bullying in Schools: How Successful Can Interventions B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S Homophobie, Analyse statistique des résultats de l'enquête sur l'homophobie en milieu scolaire. http://www.sos-homophobie.org/sites/default/files/analyse_enquete_milieu_scolaire.pdf?q=documents/analyse_enquete_milieu_scolaire.pdf
- Stonewall. Education for All Campaign.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default.asp
- Stonewall. Stonewall education guide: Oh no! Not the gay thing!, leaflet on religious education.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4009.asp

- Stonewall, 2009. *Homophobic bullying in Britain's schools, the teachers' report*.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5761.asp
- Stonewall. 2011. *Initial Teacher Training: Developing an inclusive programme of study*.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teacher_training/default.asp
- Stonewall. 2008. *Prescription for change*. http://www.stonewall.org.uk/documents/prescription_for_change.pdf
- Stonewall. 2009. *The Teachers' Report*.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4003.asp
- Stonewall. 2007. *The School Report*.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4004.asp
- Stonewall. *Working with faith communities. Stonewall education guide*. http://www.stonewall.org.uk/at_school/education_for_all/quick_links/education_resources/5761.asp
- Stop Bullying! Canada. <http://stopbullyingcanada.wordpress.com/statistic/>
- Szalacha, L. 2003. Safer sexual diversity climates: Lessons learned from an evaluation of Massachusetts safe schools program for gay and lesbian learner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10(1) 58 -88.
- Takacs, J. 2006. *Social exclusion of you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Europe*. Brussels: ILGA-Europe and IGLYO.
- Taylor et al. 2011. *Every class in every school: The first national climate survey on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 in Canadian schools. Final Report*. Toronto: Egale Canada Human Rights Trust.
- Telljohann, S.K. and Price, J.H., 1993.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Adolescent Homosexuals' Life Experiences: Ramifications for School Personnel. *Journal of Homosexuality*, 26:1, 41-56 in The Equality Authority, 2010. O'Higgins-Norman, J., with Goldrick, M. and Harrison, K. *Addressing Homophobic Bullying in Second-Level Schools*.
- UN General Assembly. 2011. *Human Rights Council Seventeenth session: Follow-up and implementation of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http://www.dayagain-sthomophobia.org/IMG/pdf/UN_SOGI_Resolution-English.pdf
- UN Secretary General. (March 2012). *Video message to Human Rights Council Meeting on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http://www.un.org/sg/statements/index.asp?nid=5900>.
-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8 December 2011. <http://www.un.org/sg/statements/?nid=5747>

-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05. *Regional Desk Review: North America*. <http://www.violencestudy.org/r27>
- United Nations. 2000.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 UNESCO. 1994. *The Salamanca Statement*. Paris: UNESCO.
- UNESCO. 2005.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2005*. Paris: UNESCO.
- UNESCO. 2009.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for schools, teachers and health educators*. Paris: UNESCO.
- UNESCO. 2009. *Policy guidelines on inclusion in education*. Paris: UNESCO.
- UNESCO (Representative in Brazil). 2009. http://www.ypinaction.org/files/01/94/Homophobia_in_schools.pdf
- UNESCO. 2011. *Stopping Violence in Schools: A Guide for Teachers*.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41/184162e.pdf>
- UNESCO and UNICEF. 2007.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ducation for All*. Paris: UNESCO
- UPCH/PAHO. 2011. *Estudio a través de internet sobre bullying y sus manifestaciones homofóbicas en escuelas de Chile, Guatemala, México y Perú*, (in press).
- Warwick I, Douglas. 2001. *Safe for all, a best practice guide to prevent homophobic bullying in secondary schools*. Education Policy Research Unit,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Welcoming Schools. *The Welcoming Schools Guide*. <http://www.welcomingschools.org/about/>
- World Education Forum. 2000.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Paris, UNESCO.

번역 후기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배제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은 너무도 쉽고 빈번하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되곤 합니다. 교육 당국이 교과서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교사가 교수법에 대해 수없이 연구해도, 교육 그 자체에서 배제되는 청소년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와 교사, 학부모는 마땅히 이러한 권리의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시 경쟁에 쫓겨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대부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커밍아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고민들 중 많은 것들은 먼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약 학교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양성과 포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언제나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 ‘먼저’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고민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해 학교 내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모교에 편지 보내기 캠페인,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모니터링단 조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초 열린 ‘LGBT 인권포럼’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는 이름의 색션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 당국(급한 일이 생겨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교사, 학부모, 청소년, 인권활동가가 모두 패넬로 참석해 청소년 성소수자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배제되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희는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이 자료집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은 2011년 12월 브라질에서 유네스코가 개최하고 유엔이 지원한, 교육기관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자문회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이 회의에서 전세계 25개국의 전문가가 모여 탐구한 좋은 정책과 실천 사례들을 자료집에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여러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반스쿨팀은 이 자료집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우리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번역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번역하면서 저희는 교육의 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주민 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렇듯 학교는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친구를 처음 접하는 공간이며,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처음 생각해보게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곧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다양성을 인정받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이렇게 생겨나고, ‘왕따’나 ‘학교 폭력’

때문에 교육에서 배제되는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교육에서 배제되는 청소년이 줄어들다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공간이 될 때, 교육의 질은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상담 사회복지사 등, 인권단체에 먼저 연락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사모임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세미나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해왔던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그런 관심에 감개무량합니다.

저희는 이 자료집이 더욱 많은 교사들에게 읽히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에서 소개하는 사례들 중에는 생각보다 해보기 쉬운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티 타임 세미나”를 해보길 추천합니다. 점심 시간 후 수업이 없을 때, 친한 선생님들끼리 모여 커피나 차를 마시는 그 시간에 30분 정도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배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자료집을 발제문으로 삼아 이야기를 시작해보아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돕고 싶다면 인권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이나 그 외에도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인권단체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단체에 인권교육 신청을 하면 인권활동가가 직접 방문해 인권교육도 진행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꾸러미>, 동성애자인권연대(2012).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료집.(다운로드: <http://www.lgbtpride.or.kr/youth>)
- <작은 무지개들의 비밀일기>, 동성애자인권연대(2011). 스무 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인터뷰집.(다운로드: <http://www.lgbtpride.or.kr/youth>)
- <성적소수자 학교내 차별사례모음집>, 무지개행동(2011).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받는 구체적인 차별 사례들(문의: 동성애자인권연대 lgbtpride@empal.com 070-7592-9984)
- <선생님 저 동성애자인 거 같아요!>, 동성애자인권연대(2010). 교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야기(다운로드: <http://www.lgbtpride.or.kr/youth>)
- <커밍아웃 가이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2007), 커밍아웃을 하기 전 생각해야 할 것들을 단계적으로 안내(다운로드: http://chingusai.net/commingout/chingusai_comingout_guide_book.pdf)
-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37가지 질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2007). 문답식으로 정리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문의: 한국성적소수자문

화인권센터 kscrcmember@naver.com 0505-896-8080)

-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2005). 동성애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과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법 (다운로드: <http://chingusai.net/school.pdf>)
-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발간 프로젝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2005). 양질의 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권교육 담당자들이 믿고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문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member@naver.com 0505-896-8080)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민은 사실 누구나 청소년 시기에 해 불법한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청소년 시기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져보거나, 너무도 아픈 첫사랑을 해보거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민과 다른 것은, 가까운 곳에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자료집을 번역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황무지에 가까운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땅이 이 작은 번역으로 조금이라도 촉촉히 적셔질 것이라는 마음에 가슴 설레기도 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도움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한국어판 서문을 써주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한국어판이 나오기까지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를 보내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님, Justine Sass를 비롯한 유네스코와 유엔 관계자 분들, 자료집 번역의 전 과정은 물론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아낌 없는 조언과 관심을 준 GALE의 Peter Dankmeijer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 10.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인권활동가 일동

Photo credits:

- p. 11: © P. Pothipun
- p. 15: © 2009 C. Danon-Boileau
- p. 18: © UNESCO/Alberto Jonquière
- p. 24: © UNESCO/K. Benjamañeepairoj
- p. 33: © UNESCO/J. Liang
- p. 39: © UNESCO/José Gabriel Ruiz Lembo
- p. 42: © P. Pothipun
- p. 45: © 2005 Gay and Lesbian Memory in Action (GALA)/J. Bloch
- p. 49: © UNESCO/J. Liang
- p. 50: © 2005 Gay and Lesbian Memory in Action (GALA)/J. Bloch
- p. 66: © BeLoNG To Youth Services & The Equality Authority Ireland
- p. 75: © 2005 Gay and Lesbian Memory in Action (GALA)/Z. Muholi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유네스코 가이드북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비록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은 쉽게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만, 학교폭력, 왕따 등과 같이 우리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관심과 보살핌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터부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2012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HIV 및 보건 교육 우수 정책과 사례' 시리즈(전8권) 중 제8권 『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해소해야 하는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 쪽이 되지 않는 소책자이긴 하지만 담고 있는 의미와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발간사에서

이 책은 교육현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해 소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교사, 행정가, 정책입안자,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의 모국,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대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열거된 사례들은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수집된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혁신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서문에서

